

박한수 목사,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 “태아 생명 보호해야”

“정치 아닌 도덕과 상식의 문제… 교회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시위에 참석해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특히 태아의 생명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도자라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국민을 살리고 죽어가는 아이도 살려내 자고 호소해야 한다”며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주 심사숙고하고 전문 의사의 소견에 따라 낙태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지만, 약물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한마디에 하루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약물 도입을 서두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통치권자는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말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낙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표를 의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도덕과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며 “사람을 살리는 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없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먼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진이나 재난을 당해도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생중계까지 한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는 국민의 태중 아이들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없이 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이런 법이 시행됐을 때의 후유증 여부를 정확히 따져 법을 제정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권리로 인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며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 낙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은 약물 낙태의 후유증도 잘 모른다”며 “그것이 임산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냐’



박한수 목사 등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라고 했다.

박 목사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 모든 권리에는 상대성이 있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 고통받거나 피해를 입는 존재가 있다면 내 권리로 심사숙고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뱃속의 아이를 내가 지을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권리의 남용”이라며 “아이 당사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약한 태아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는 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다음에 다

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수동적인 개념이고 지켜내는 개념이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교회가 나서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잘 키우고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교회가 많이 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낙태 문제를 법으로 엄중하게



2일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 ©김진영 기자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을 향해 “제발 낙태하기 쉬운 나라,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지 말아 달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야를 떠나 생각하고 태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살리고 우리나라 인구를 늘

려가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냐”라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꼭 심사숙고해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속히 제정하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바로 나의 문제, 내 손주와 내 자식의 문제로 인식해 달라”며 “우리 산모들의 건강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학교 교사 “격려보다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을”

교사 57%만 “전문성 갖췄다” 평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비율은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앞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현재 교회가 제공하는 ‘격려위로’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소명·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더 많이 꼽았으며, 사역에 대한 피드백도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동대위,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

»3면

4개 교회 청년부, 연합 연애 세미나 ‘우다연’ 개최

»24면

요하다고 응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1일 ‘소울 페어런트(Soul Parent): 교사’라는 제목의 주간 리포트 ‘남바즈 348호’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사)꿈이있는미래와 목데연이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를 바탕으로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 동기와 만족도, 역량, 교회의 지원, 가정과의 소통 및 사역 지속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역 동기로는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가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봉사 영역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봉사라서’ 21%,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서’ 15% 순이었다. 교사 사역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 본인이 74%로 가장 높았고, 부모 70%, 학생 61%, 사역자 58% 순이었다. 교사 본인과 사역자의 만족도에는 16%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5점 만점에 평균은 각 집단에서 3.7-3.9점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만족하는 이유로는 ‘교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가 42%로 가장 높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서’가 30%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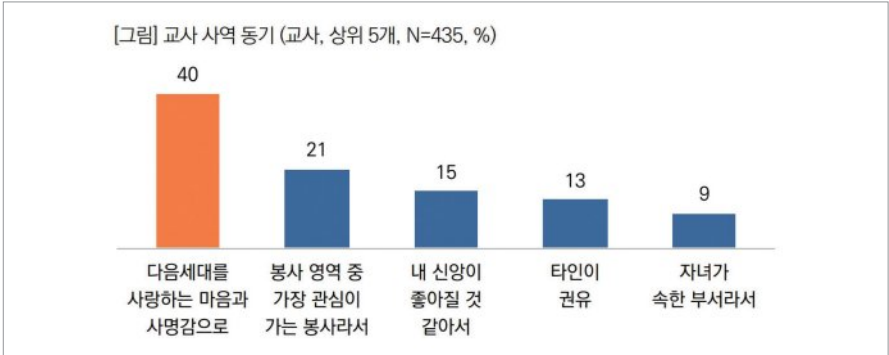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는 57%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5점 만점 평균은 3.6점이었다.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열정과 소명 의식’이 56%로 가장 높았고, ‘소통·관계 형성 능력’ 47%, ‘정경 이해 능력’ 38%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교사들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소통·관계 형성 능력’ 44%, ‘교수 능력’ 41%, ‘학생 관리 능력’ 40% 순이었다. 특히 필요한 역량과 취약 역량의 격차는 ‘학생 관리 능력’이 13%포인트, ‘교수 능력’이 11%포인트로 가장 컸다.

목데연은 “교사 대상 실질적인 학생 관리 및 수업 진행 스킬을 보완해 주는 교회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교회가 제공하는 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교사와 담임목사 모두 ‘교사를 위한 격려위로’와 ‘재정적 지원’을 상위 항목으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 지원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격려 및 위로’의 경우 담임목사의 68%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교사 가운데서는 42%가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명·정체성 확립 집회’도 담임목사 49%, 교사 21%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과 교사들이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현재 지원으로는 ‘격려위로’가 42%로 가장 높았지만, 향후 강화를 원하는 지원으로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교사로서 소명·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각각 40%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교사 사역에 대한 피드백’도 현재 지원은 20%였지만 향후 필요하다는 응답은 28%로 8%포인트 높았다. 가정과 교사 간 소통에서도 인식 차이



©목회데이터연구소

가 나타났다.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는 응답은 교사 82%, 학부모 65%로 17%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자주 한다’는 응답은 교사 32%, 학부모 10%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부모가 교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가 60%로 가장 높았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49%로 뒤를 이었다. 목데연은 “교회학교 교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학부모와 자녀의 신앙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신앙적 조연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역자 63%는 교회학교 신규 교

사 총원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원활하다’는 응답은 17%였다. 반면 현재 교사들의 사역 지속 의향은 비교적 높았다. 교사 79%가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자임하고 싶다’는 10%였다.

교사 사역에 만족하는 경우 지속 의향은 87%로, 불만족한 경우의 33%보다 높았다. 스스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교사의 지속 의향도 87%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교사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데연은 “교사의 사역 만족도 제고와 전문성 강화 교육이 교사 수급 안정화의 핵심 열쇠”라고 분석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한기총 “용혜인 의원 지명 즉각 재고하라”

“가족·성평등·청소년 정책 수장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가 1일 성명을 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용혜인 의원의 과

거 입법 활동과 현재의 행보를 볼 때, 대한민국 가족·성평등·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했다. 이들은 “용혜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헌정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러한 모습은 하나의 가득권도 놓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며, 남을 밟고,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탐욕적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동성 간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제도화하기 위한 우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술 의원

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독소조항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까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가족 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특정 이념을 앞세워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한 회

복과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 지명은 부적절하며, 이번 지명을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롯해 이들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또한 ‘인권’과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치의 기준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미래도 결코 밝을 수 없다”며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혼란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책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수기총,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비례대표직 유지·전문성·입법 행보 등
성명 통해 철회 요구 7가지 이유 제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사진, 사무총장 서요한 목사, 이하 수기총)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기총은 최근 ‘용혜인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성

명을 발표하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과 전문성 부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생활동반자법과 모자보건법 발의 등을 철회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수기총은 “용혜인 의원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상과 이념의 소유자로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장관 지명을 강력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직 유지, 공정성 훼손 우려”

수기총이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의 정당이 되어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기총은 용혜인 후보자가 제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고,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으로서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상근 당직자로 근무하는 점도 거론하며 의원직 유지 결정이 국민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행정 경험 문제 제기” 수기총은 용혜인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명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컸다”며 “이에 앞장섰던 인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운영에 필요한 행정 경험과 정책 조율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놴다. 수기총은 “국가 사무는 젊은 패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부처를 이끌 행정 경험과 실질적인 정책 조율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혜인 후보자가 추진해 온 기본소득과 토

지보유세 정책도 비판했다. 수기총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수백조원의 재원과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한 뒤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젠더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우려” 수기총은 용혜인 후보자의 페미니즘 관련 행보가 사회의 젠더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성명은 “용혜인 후보자의 강경한 페미니즘 행보가 사회 전반의 젠더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고, 특히 2030 남성층의 반발과 여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제21·22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도 지명 철회 사유로 제시했다. 수기총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비판을 제약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점도 언급하며 군 기강과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비동의 간음죄도 비판” 수기총은 용혜인 후보자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성명은 해당 개정안에 만삭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약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추진해 온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성범죄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기총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행정 경험, 기본소득 정책, 젠더 갈등, 가족제도 관련 법안, 생명윤리 문제 등 일곱 가지 사유를 종합해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상과 이념의 소유자로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이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5대 종단 성직자 30여 명, DMZ 410km 생명평화순례

10월 1~22일 고성서 파주까지 걸어
분단·전쟁 현장 6곳서 위령행사 진행

남북 관계의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DMZ) 순례에 나선다. ‘2026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순례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순례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의 성직자와 수도자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21박 22일 동안 고성에서 파주까지 비무장지대 일대 410km를 걷는다. ◆“상처를 넘어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 이번 순례의 주제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이다. 기자회견에는 준비위원장 김찬수 목사를 비롯해 실천불교승가회 장적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 이은형 신부 등 주요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신부는 취지문을 통해 “분단 8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남북 간 이념적 충돌과 대결의 기조로 단절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순례는 상처를 회피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재건을 시도하려는 윤리적 결단이자 적극적 평화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서 출발·양구·화천·철원·연천 거쳐 파주까지 순례단은 오는 9월 30일 강원 고성 명파아트호텔에서 ‘순례자학교’를 개강하며 전체 일정을 시작한다. 이튿날인 10월 1일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양구와 화천, 철원, 연천을 차례로 거친 뒤 22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순례 기간에는 건봉사과 피의농성 전 투전적비, 평화의 댐, 리비교 역사공원 등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6개 주요 거점에서 회상자들을 기억하는 위령행사를 진행한다. 불교계에서는 장적 스님과 일문 스님, 종호 스님, 무원 스님, 종묵 스님, 잇코 스님 등이 전 구간을 종주하며 종교 간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시민·타종교인도 구간별 참여 가능 전 구간 순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타종교인도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순례’에 참여할 수 있다. 부분 참가자를 포함한 순례자들의 숙소는 각자 마련하는 자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례단은 10월 22일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의 도보 일정을 마친 뒤, 23일 파주 참화와 속죄의 성당 민족화해센터에서 해단식을 열고 전체 순례를 마무리한다. 다니엘 최 기자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기장 동대위,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 개최

536개 교회 목사·장로 1312명 참여
총회에 쿼어신학 검증·교단 정체성 회복 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동대위)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2차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기장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창 1:27)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장 총회에 쿼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검증과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총회와 신학교에는 성경적 신앙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기초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536개 교회서 목사·장로 1312명 참여

동대위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선교대회에는 기장 소속 536개 교회에서 목사 375명과 장로 937명 등 총 1312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교단의 영성 회복과 신학교육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성한 목사(전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교회를 허무는 쿼어신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현숙경 침신대 교수는 '반성경적 흐름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령'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성경의 권위로 차별금지법을 대적하라'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동대위는 이번 선교대회에 대해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과 신학적 방향성을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신학적 전

통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고백"

동대위는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적 방향성 회복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늘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급변하는 시대의 도전 속에서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과 신학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고백하는 교단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신학적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대위는 최근 수년간 교단 안에서 이어진 쿼어신학과 성소수자 관련 논의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발표와 성소수자연구위원회 활동, 한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논란이 된 사례, 총회 제7문서와 교사위원회양성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기장 동대위

평등위원회 활동 등을 우려되는 사례로 제시했다.

성명은 교단 내 '환대와 온전한 포용의 모임'이 선교대회를 앞둔 지난 8월 29일 '혐오와 박해 선동의 죄를 즉각 회개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를 둘러싸고 교단 내부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 있지만 성경적 기준 분명히 해야"

동대위는 성명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서서 신앙과 윤리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가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장 헌법의 신앙고백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동대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며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또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귀를 위해 가지는 성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라며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해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 총회에 쿼어신학 공식 검증 요구

동대위는 기장 총회가 쿼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한국교회 다수 교단이 쿼어신학에 대해 공식적인 신학 검증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단 역시 성경적 관점과 교단의 신앙고백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회와 신학교를 향해서는 "성경적 신앙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기초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단 신학교에서 쿼어신학을 노골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지·옹호하는 교수들을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목회자 후보생과 신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교단 신앙고백과 성경적 세계관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의 장 마련해야"

동대위는 교단 내 신학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회가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성경적 진리 위에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의, 평화, 생명, 그리고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 교단 일치 운동을 진행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적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동대위는 "앞으로도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적 진리와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예장 통합총회, 창립 114주년 감사예배 드려

정훈 총회장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훈 목사)가 1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회 창립 제11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승민 목사(총회서기)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참석자들은 진호석 목사(총회부서기), 윤광서 목사(총회부회록서기)의 인도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낭독했다.

이어 전학수 장로(총회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김영일 목사(총회회록서기)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정훈 목사가 '직분은 주신 이유?'(에베소서 4:1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목회와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더 큰 자리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 목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결국 행복한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직분

과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를 판단하거나 자기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억울함과 원망도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은 삶과 사역도 자기 욕심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러져야 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예배는 이어 전형구 장로(총회회계)가 봉헌기도를 드렸으며 최상도 목사(총회사무총장)가 총회연혁 낭독, 권위영 목사(총회부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총회장 감사패, 직원 근속 표창이 수여됐다.

다니엘 최 기자



예장통합총회 제114주년 기념감사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정훈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예배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신중주 장로(경남노회, 하청교회, 오른쪽)가 신학교육부 감사패를 수상했다. ©다니엘 최 기자

예장통합, 네팔 대홍수 피해 극복 위한 기도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가 최근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과 실종자들을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최근 총회장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8월 26일 네팔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애타계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재난으로 연락이 두절된 9명의 한국인 가운데 4명이 카트만두만인 교회의 성도와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총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구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삶의 터전 앞에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번 홍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제목을 제시했다. 첫째, 실종된 이들의 무사 귀환과 가족들을 위한 위로다.

총회는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며 "구조의 손길이 하루아침에 닿아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 소식 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불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네팔 이웃들의 상처 치유와 회복이다. 총회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들과 현지 교민들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며 "부상당한 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잃은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되

어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셋째, 안전한 구조·구호 및 복구 과정이다. 총회는 "더 이상의 비와 홍수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구조대원과 구호 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자"라며 "식수와 식량, 의약품을 비롯한 긴급 구호물자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되고 전염병 등 추가 재난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팔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우리의 기도로 품어 달라.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종자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총회는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울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와 구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애경이만드는 세상의 색깔은 블루

애경은 푸른색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지속가능한 푸른 내일을 위해 애경은 탄소저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바꾼 ‘1.2.3부흥운동’… 차드·카메룬 목회자 간증

기도·말씀·전도 훈련으로 교회 성장…

차드 8명→170명, 카메룬 웨교회 149% 증가

목자재단이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2.3부흥운동’이 기도와 말씀, 전도 회복을 통해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목자재단은 아프리카 1.2.3부흥운동의 사례를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 차드 델리성결교회 제코니아 목사와 카메룬 웨교회 마이클 목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두 목회자는 지난 8월 27일 입국해 수정교회를 시작으로 정음명성교회와 서산교회, 서울수정교회, 은평교회, 길교회, 문화촌교회 등을 방문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를 간증하고 있다.

1.2.3부흥운동은 목회자가 매일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을 읽으며 3시간 전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목회훈련이다.

◆제코니아 목사 “8명 교회가 2년 반 만에 170명으로”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남서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델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제코니아 목사는 2023년 1.2.3부흥운동 훈련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제코니아 목사는 가장 먼저 기도생활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훈련 이후 매일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20~30분씩 추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전도에 나서기 전에도 만날 사람과 찾아갈 곳을 놓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말씀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읽는 데 약 2년이 걸렸지만, 훈련 이후에는 넉 달마다 성경 전체를 한 차례 읽어 1년에 세 번 통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2~3구절씩 암송하며 묵상도 이어가고 있다.

제코니아 목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설교 준비 과정에서도 필요한 본문과 구절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됐고,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회 성장이다. 교회를 시작한 뒤 1년 동안 출석 성도가 8명에 그쳤지만 1.2.3부흥운동 이후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니며 전도했고, 2년 반 만에 출석 인원이 170명으로 늘었다.

그는 혼자 또는 제자 한 명과 전도에 나섰고 때로는 사모도 함께했다. 자신의 회심 과정과 예수를 믿은 뒤 변화된 삶을



목자재단이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2.3부흥운동’이 기도와 말씀, 전도 회복을 통해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프리카 1.2.3부흥운동의 사례를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 차드 델리성결교회 제코니아 목사와 카메룬 웨교회 마이클 목사(가운데 오른쪽과 하단 오른쪽)를 초청했다. ©목자재단

소개하고, 질문을 받으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매주 3~4명씩 교회로 인도했다고 전했다.

성도가 늘면서 작은 임시 예배 공간에서 더 큰 예배당으로 옮기는 변화도 뒤따랐다.

◆마이클 목사 “낙심 딛고 다시 전도… 교회 149% 성장”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웨 지역에서 목회하는 마이클 목사는 1.2.3부흥운동을 ‘낙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클 목사는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는 사역에 크게 지쳐 있었고 말씀과 기도, 전도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

했다.

훈련 이후에는 성경을 석 달에 한 차례씩 읽어 1년에 네 번 통독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전에는 성경 전체를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말씀 읽기를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설교에서 인용하는 본문도 늘었다고 전했다.

기도시간 역시 크게 늘었다. 밤 8~9시에 잠든 뒤 새벽 2~3시에 일어나 하루 2~3시간씩 기도하고, 오전 6시부터는 가족을 위한 기도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도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마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픈 주민이 있을 경우 기도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 회복 이후에는 전도 현장으로 다시 나갔다. 마이클 목사는 5명의 전도된

을 구성해 매일 3시간 이상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거리와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결과 웨교회는 2년 반 만에 14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회의 존재가 마을에 알려지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차드·카메룬서 시작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로 확대

목자재단의 1.2.3부흥운동은 국내 작은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3.4부흥운동’을 아프리카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한 프로그램이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와 말씀, 전도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3년 차드와 카메룬에서 시작됐다.

목자재단에 따르면 운동에 참여한 차드 교회들은 평균 52%, 카메룬 교회들은 평균 55% 성장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교회에서는 100% 이상의 성장률도 나타났다.

이후 1.2.3부흥운동은 토고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남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지 환경을 고려한 ‘2.2.3부흥운동’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조일래 목자재단 이사장이 윤원로 선교사와 함께 카메룬과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약 60명의 목회자 가운데 12명을 선정해 기도·말씀·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모임도 이어가고 있다.

◆“목회자부터 기본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

아프리카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온 윤원로 선교사는 현지의 종교적·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목회자 자신이 먼저 기도와 말씀, 전도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선교사는 “아프리카는 한국과 토양 자체가 다르다”며 “목회자부터 기도와 말씀, 전도의 기본을 세우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자재단은 이번에 두 목회자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도 현지에서 나타난 변화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다른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일래 이사장은 “현지에서 실제 어떤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는지를 확인하고 한국교회에도 알리고 싶었다”며 “작은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나타난 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자재단은 훈련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두 목회자의 한국 초청에는 감곡현 창리교회 명예목사와 노혜숙 사모가 1000만원을 지원 현금했다.

재단은 앞으로 운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재교육, 현지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이어가고 다른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인다. 다니엘 최 기자

AI 윤리·정직 등 기독교 가치 주제 전국 규모 UCC 공모전

‘제18회 AI윤리·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 9월 1일~ 10월 31일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한국정직운동본부, 국제IofC(MRA)한국본부, 국제미래학회, 도전한국인본부, 한국문화콘텐츠아카데미협회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18회 AI 윤리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이 일상과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정직과 인성, AI 윤리의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표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문가,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교회학교와 기독교학교, 청년부, 선교청소년 단체, 기독교 대학 동아리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정직과 인간 존엄, 이웃에 대한 배려, AI의 윤리적 사용 등 기독교적 가치를 신앙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정직, AI 윤리, 인성, 도전 등 4개 분야다. 정직한 삶과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부터 정직’ 캠페인을 확산하는 내용, 건강한 인공지능 사회를 위한 AI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인공지능 사용 윤리 10계명’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AI 인류혁명 시대의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인성 가치와 도전을 통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도 공모 주제로 제시됐다.

출품작은 공모 주제와 관련된 30초에서 3분 이내의 실사 동영상, 애니메이션, AI 영상 또는 시극 영상 UCC로 제작하면 된다. 응모자는 클린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부문에는 국회의장상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성평등 가족부 장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시장상, 경기도지사상, 교육감상과 주관기관장상, 기관장상, 대학 총장상, 최우수상 등을

포함해 50여 개의 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시상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가정, 공공기관, 미디어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AI 윤리와 정직한 인성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종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전국기독교수업연합회 대표회장·한국기독교시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교회와 기독교 교육 현장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AI를 바르게 인용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공모전을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가족, 시민과 전문가 등 모든 세대가 바랄만한 AI 윤리와 바른 인성, 정직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국민 참여형 교육·문화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응모양식은 클린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UCC공모전 운영사무국(02-501-7234, admin@cleancontents.org)으로 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주다산교회, 평일 주차장 지역사회에 개방

경기 화성 동탄에 위치한 주다산교회가 평일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주다산교회는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 뒤편 필봉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일에는 주다산교회 본교회 주차장에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인근 공영주차장에도 약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교회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분산하고 있다.

특히 필봉산을 찾는 주민들이 교회 주

차장을 이용하면서 주변 지역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주다산교회는 평일 주차장 개방뿐 아니라 주일 교회 방문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주일에는 교회 자체 주차장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병원, 공영주차장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교회에는 새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10대와 본교회 주차장 100대가 마련돼 있다.

여기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인근 학교 2곳의 주차장을 각각 60대씩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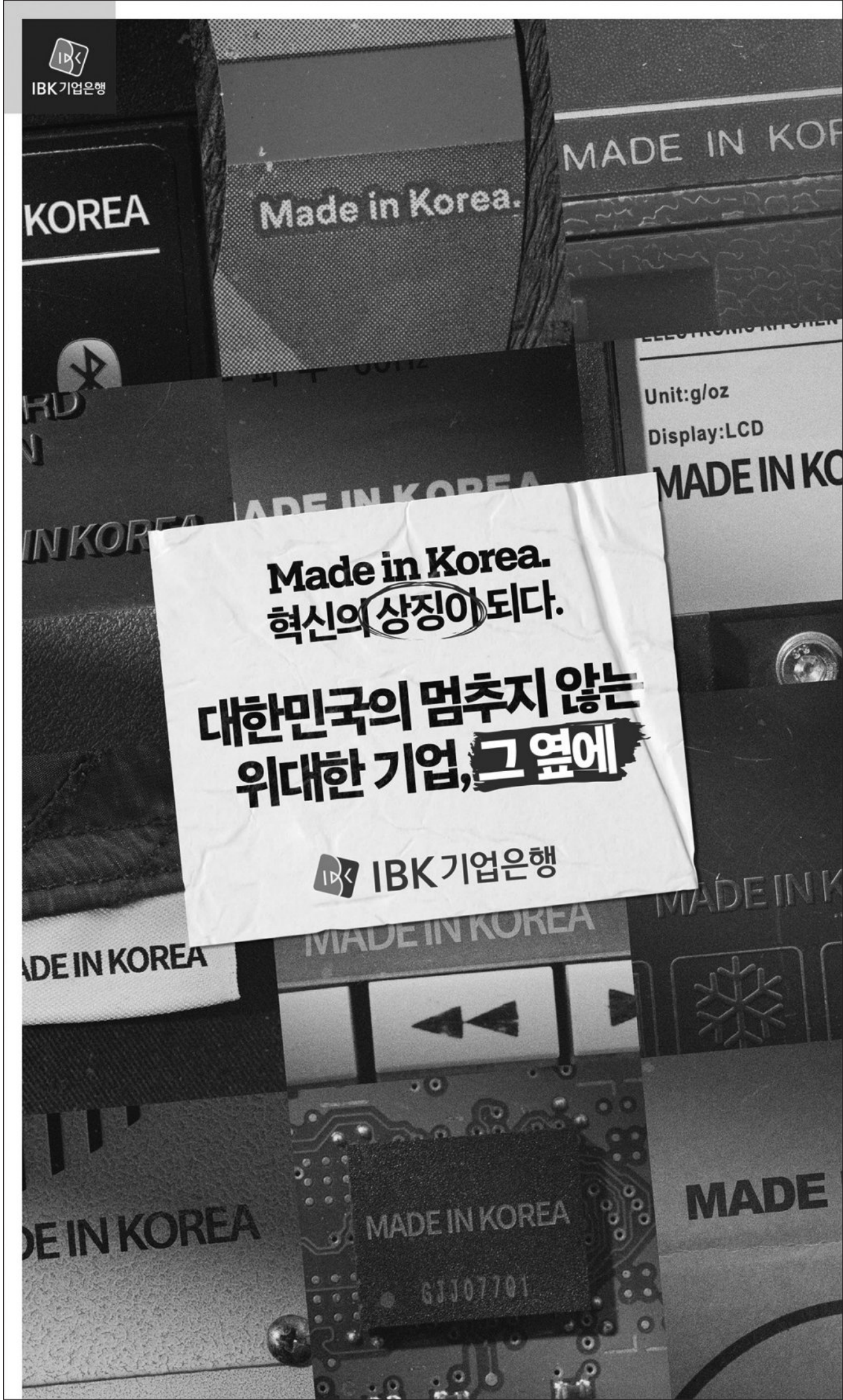


주차장 안내 현수막. ©주다산교회

고 있다.

주일에 주차 공간이 비는 인근 병원과도 협력해 약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곳에서는 각각 약 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이들 모두 합치면 주일에는 최대 700대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다니엘 최 기자



대신 저출산대책위 세미나… “저출산 해법, 가정·공동체 회복에서”

오산 성북교회서 목회자·부부·다음세대 100여 명 참석…
장대연 교수 가정사역 중요성 강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저출산과 가정 해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예장 대신 총회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경기 오산 성북교회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정사역의 시대적 요구’를 주제로 저출산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회 임원을 비롯해 목회자와 부부, 다음세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가정 존립 위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대안을 살펴보았다.

◆정정인 총회장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

신 기업이자 상급”

강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정정인 총회장은 사면 127편 3-5절을 본문으로 ‘생명의 축복을 이어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총회장은 신앙교육의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통한 정체성 형성인 ‘토라 정신’,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지키는 ‘후츄과 정신’, 좌절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뜻하는 ‘마사다 정신’을 제시했다.

그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기업이자 상급으로 여기고, 활을 당겨 화살을 과녁으로 보내듯 정성껏 길러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1부 예배는 부총회장 임완섭 장로의 기



예장 대신 총회(총회장 정정인 목사) 저출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천식 목사)가 지난 30일 오후 오산 성북교회(담임 안용훈 목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정사역의 시대적 요구’라는 주제로 저출산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장대신 저출산대책위원회

도와 부총회장 이천식 목사의 축도, 총무 장인호 목사의 인사 및 광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대연 교수 “교회 위기 뿌리에도 가정 해체”

이어진 강연에서는 장대연 한경국립대

학교 복지담당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실과 교회의 가정사역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9명을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출생아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응기구가 출범했지만 뚜렷한 반전을 이루지 못했고, 향후 병역 자원 급감 등 사회 전반의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저출산 위기의 대안을 ‘공동체 회복’에서 찾아야 하며 그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 24-25절을 근거로 “교회의 가정사역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교회 위기의 뿌리에도 가정 해체와 공동체 붕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사랑, 관심용서겸손으로 표현해야”

2부 강연은 ‘가족 사랑법’을 주제로 진

행했다.

장 교수는 사랑을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성장과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에서 비교하거나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꺼내는 태도를 경계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겸손이 가족 사랑을 완성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다.

예장 대신 총회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인구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가정과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회가 실질적인 가정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마가의다락방 공동체 6개 교회, 예배당 비우고 전국 200개 교회로 ‘동행’

9월 6일 성도 5000명 팀별 파송…
“예배 포기 아닌 예배의 자리 넓히는 것”

인천 마가의다락방 공동체 소속 6개 교회가 오는 6일 주일 각 교회 예배당을 비우고, 약 5000명의 성도를 전국 200개 교회로 파송하는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마가의다락방교회를 비롯해 필그림교회, 필그림선교교회, 길튼교회, 방주교회, 아인교회가 참여한다. 성도들은 팀별로 전국 각지의 교회를 찾아 현지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배를 드립 예정이다.

참여 성도들은 예배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한 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눈다. 각 교회를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서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함께 걸어가는 데 목적을 뒀다.

공동체 측은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넓히는 것입니다”라며 “우리 예배당 하나가 비는 그 시간에 200개의 예배당이 채워집니다”라고 밝혔다.

‘동행 프로젝트’는 방주교회 박보영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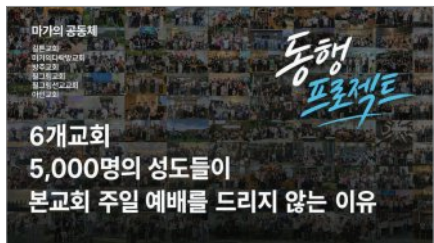
임목사가 2016년 진행했던 사역에서 시작됐다. 당시 방주교회는 10주에 한 번씩, 한 해 다섯 차례 예배당 문을 닫고 성도들을 작은 교회로 파송해 함께 예배드렸다. 이 같은 동행의 정신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다. 마가의다락방 공동체 청년부인 ‘ICC 청년 공동체’는 지난 7월 전국 100개 교회를 찾아 2박 3일간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공동체는 청년들이 전국의 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10년 전 시작된 동행의 의미를 공동체 전체가 다시 이야기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체 측은 이번 사역을 단순히 ‘작은 교회를 돕는’ 일로 규정하는 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도움을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를 구분하기보다 서로의 믿음과 기도를 배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행의 자리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돕기보다 배우고, 함께 교회와 동행하는 사역입니다”라며 “비어 있던 자리에 앉고, 오랫동안 홀로 드러지던 기도 위에 우리의 기도



를 더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집중호우 피해 육군9사단 백마승리교회 복구 위한 위문공연 열려

500여 명 장병 참석…
생명존중교육·찬양·공연으로 위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진 육군9사단 백마승리교회의 조속한 복구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공연이 열렸다.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재 육군 3789부대 1대대 강당에서 ‘생명존중교육 및 백마승리교회 위문공연’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명의 장병이 참석했다.

이번 위문공연은 (사)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이사장 전태근)가 주최하고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KVMCF) 여호수아회(회장 전현표·부천상동사랑교회)와 시민포커스가 후원했다.

특히 백마승리교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근 산에서 토사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예배 공간이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병들의 영적 안식처인 백마승리교회의 조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진행된 생명존중교육에서는 ‘당신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또한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동료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돌보는 생명존중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위문공연에서는 밴드 큰그림사와 다비니미션 등이 참여해 찬양을 비롯해 음악과 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참석한 장병들은 폭염과 무더위, 군 사훈련 등으로 지친 가운데 공연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군 3789부대 1대대 대대장 양명환



경기도 파주시 육군 3789부대 1대대 강당에서 열린 ‘생명존중교육 및 백마승리교회 위문공연’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장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생명존중교육 및 백마승리교회 위문공연’에서 공연팀이 장병들을 위한 찬양과 음악, 춤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주최 측 제공



육군 3789부대 1대대 대대장 양명환 중령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신앙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전태근 이사장과 전현표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중령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신앙생활 향상에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태근 이사장과 전현표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KVMCF) 여호수아회와 (사)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는 “이번 위문공연이 국가안보를 위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작은 위로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생명사랑과 군선교를 실천하고 육군 백마승리교회가 하루속

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군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문공연은 생명사랑과 장병 위로, 예배의 회복을 함께 실천한 만군 협력의 현장으로 마련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마승리교회의 복구를 지원하고 장병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군선교 현장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요한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개, 연합은 예수 충만에서”

英한인선교사회, 호성기 목사 초청 수양회 갖고 사명확인

영국한인선교사회(Korean Missionary Council, KMC)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남동부 배틀 애쉬번햄 플레이스에서 제22차 총회 및 수양회를 갖고 영국 재복음화를 위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40여명의 KMC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수양회에서 주강사로 나선 호성기 세계전문인선교회(PGM) 국제대표는 6번의 메시지를 통해 현장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유럽의 영혼을 영적으로 살리는 생명 목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 대표는 “영이 죽은 시대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영을 살리는 목회,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선교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이고,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에 가진 Q&A 시간에는 호 대표가 목회와 선교사역 때 자신의 실수와 실패 사례를 진솔하게 소개하면서 후배 선교사들이 큰 격려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깨달은 것은 사역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 예수로 충만한 삶이었다”며 “영국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 대표는 부흥과 회개의 본질도 강조했다. 그

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부흥”이라면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면 영국이 살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되면 성도들이 하나된다. 영국에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 연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영국 선교사들은 메시지 후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호 목사는 참석한 모든 선교사 자녀에게 일일이 안수기를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조영태 영국 웨일즈 선교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힘든 선교사역과 생존의 중압감에 짓눌려 있는 선교사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전마저 잃어버렸던 선교사들이 다시 비전을 찾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교사도 “호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2년 전 아픔을 겪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영국한인선교사회 수양회와 총회는 PGM 유럽권역장을 맡고 있는 조영태 선교사가 지난해 10월 KMC 회장에 취임하면서 준비됐다. 그동안 연합사역에 집중할 결과 KMC 신규 회원이 된 11명의 선교사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PGM 유럽권역 본부에서 재정과 중보기도로 헌신했다.

김민선 기자



영국한인선교사회 주최 수양회에 참석한 선교사와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주최 측 제공



영국한인선교사회 소속 선교사들이 26일 호성기 목사의 메시지 후 회개기도를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호성기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가 8월 24-26일(현지시간) 영국 남동부 배틀 애쉬번햄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영국한인선교사회 수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2026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앞두고 준비 기도회 열려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26년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 기도회로 모인 본 기도회에 150여명(은혜교회 추정)의 성도가 참석하여 기도했다.

은혜교회 중보기도 담당 교역자인 현민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김영수 장로(다민족연합기도대회 재정위원장)의 기도에 이어서 한기홍 목사가 “기도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아베스나 하스기아처럼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라고 설교한 후 통성기도를 인도하며 기도의 열기를 더했다.

소프라노 지경 집사의 특별찬양 후에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의 비전 캐스팅이 있었다. 강 목사는 “우리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자!”라고 도전하며 9월13일 다민족연합 기도대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했다.

2부 기도회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진행했다. 5개의 주제로 기도했는데, 김은목 목사(남가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 중보기도팀

주 교협회장), 최국현목사(OC 교협회장), 심상은 목사(OC 교협이사장), 신용환 목사(사우스베이 목사회장),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 사역자)가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남가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하여 각각 도전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미국과 부흥 그리고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는 남가주 지역 중보기도팀의 연합 기도회다. 2022년 6월 감사한 인교회에서 첫기도회를 가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은혜교회 중보기도팀(현민정 목사), 감사한 인교회 중보기도팀(전영숙 전도사), 주님의영광교회 중보기도팀(김미영 전도사), 충현선교교회중보기도팀(박안식 전도사), 그리고 춘 TV 마주 방송국 중보기도팀(안현숙목사), CMF 선교원(김철민 장로) 그리고 청교도기도동역자 기도회(강순영 목사, 강태광 목사)가 연합하여 모이고 있다.

중보기도팀연합기도사역이나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관한 문의 사항은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 578 7933)에게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미주복음방송, ‘2026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특별생방송 진행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방송 사역 후원을 위한 ‘2026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오는 10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GBC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세월 지켜온 복음의 소리를 다음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공개헌금의 날’은 상업광고 없이 전적으로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GBC가 한 해 동안의 방송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공개 모금 캠페인으로, 전파와 현장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날이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45만 달러이며, 모금액은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 △일반재정 부족분 조달 △송출타워 노후장비(제너레이터 등) 교체 △종합미디어로의 도약을 위한 시설·인적 투자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주제는 ‘우리가 함께 쓰는 내일’이며, 슬로건은 ‘복음의 소리, 우리가 지켜야 다음세대가 듣습니다’이다. 이는 로마서 10장 14-15절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에 뿌리를 둔다. 지금 붙들지 않으면 다음세대는 이 소리를 만나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GBC는 후원자들의 헌금을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신앙을 만날 길을 미리 준비하는 씨앗으로 여긴다.

GBC는 공개헌금의 날에 앞서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9시 35분 특집방송 ‘복음의 소리, 우리가 지켜나다’를 편성한다. [부르심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방송선교의 여정]이라는 부제 아래,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작은 순종 하나로 뿌려내린 방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다투어 걸쳐 되짚는 특집이다. 척박한 땅에 심긴 간절한 부르심으로 시작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전파를 지켜낸 헌신, 전파를 넘어 이웃과 세계를 품어온 사역, 그리고 다음세대에게 이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까지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마지막 날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열어갈 다음세대 방송비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에도 GBC Anaheim 본사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 12곳에 부스가 설치된다. 방문 후원자에게는 GBC가 매년 제작하는 기념 에코백과 2027년 GBC 탁상용 캘린더가 선물로 증정되며, 부스별로 음료와 빵이 무료로 제공되고 본사에서는 무료 헤어컷 서비스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식당 할인권, 반찬 구매 할인권, 품질 좋은 한국 옷을 특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는 쿠폰 등 어느 해보다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된다. 자세한 일정은 9월 중 라디오 안내멘트와 청취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GBC 이영선 사장은 “지난 35년, 이 방송을 볼 들어 온 것은 결국 한 분 한 분의 신실함이었다”며, “이제는 그 신실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 함께해주는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GBC가 있다”며, “이번 공개헌금의 날에도 부담 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보탬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들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덧붙였다.

‘2026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은 10월 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AM1190 라디오와 GBC 유튜브 채널, APP 등을 통해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동역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 기관의 대표들이 출연하여 GBC의 사역과 비전을 나누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선교헌금을 받는다. 현장 부스에서도 후원 참여가 가능하다.

[2026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오후 7시 30분

·공개헌금의 날 현장 부스 : GBC Anaheim 본사, LA미주성서화운동본부, LA김성전기, LA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살렘교회, La Palma 한남체인, Buena Park H-Mart, Buena Park 한남체인, Fullerton 아리랑마켓, Diamond Bar 한남체인, Garden Grove 아리랑마켓, Irvine 사온마켓
문의 : (714) 484-1190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아프리카 도시화 문제·난민 보호·종교 자유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아프리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택 난과 교통 문제 해결 시급해져

아프리카의 도시화 동향을 추적하는 아프리카폴리스(Africapolis)는 205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 city)가 현재 3개에서 17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메가 시티 중 하나인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 랍(Dar es Salaam)의 인구는 690만 명에서 1,56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2억 4,800만 명에서 8억 2,900만 명으로 급증했고,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106개에 달한다. 도심 지역의 인구 증가(44%)와 함께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인구증가가 이 지난 25년 동안 41%를 기록했다. 아프리카폴리스는 앞으로 2050년까지 수천 개의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르에스살람을 비롯하여 세네갈의 다카르, 가나의 쿠마시, 에티오피아의 하와사, 나이지리아의 카노 같은 도시들은 평균 인구증가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인구 밀집으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들이다. 유엔은 현재 아프리카에 1억 2천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추산한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나이로비, 다카르, 아크라 같은 곳은 도시 면적의 8분의 1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메가시티와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교회들이 도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도시 선교 전략이 마련되어 다양한 계층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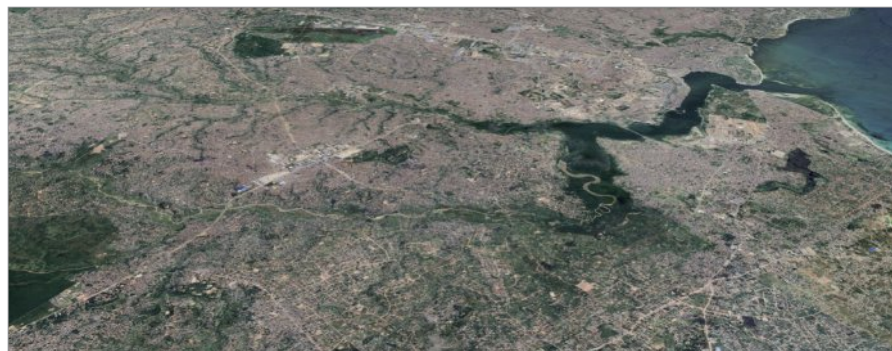
◇이집트, 난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추방 사례 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난민플랫폼(Refugee Platform)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이 수단과 남수단 등에서 들어오는 난민에 대해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카이로와 기자, 칼리우비야, 알렉산드리아에서 망명 신청자 22명이 보안 검문에 의해 체포당한 사례에 대해 알렸다. 이들은 주로 수단, 시리아, 남

수단 출신이었고, 그중 15명은 유엔난민 기구(UNHCR)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불법적인 체포를 당했다. 난민플랫폼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집트 구금 시설에서 수단 출신 난민 신청자 12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3월, 수단의 코르도판(Kordofan) 출신의 55세 여성은 2028년 거주 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카이로 시내를 건다가 사복 차림의 이집트 남성 두 명에게 끌려갔다. 4월 16일에 남수단 주바(Juba)로 추방된 22세의 남성은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행한 체류허가증이 있었지만 무고하게 체포되어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 추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또 다른 난민 세 명은 카이로 경찰서에 구금된 상황을 전했는데, 과밀한 방에 갇혀 있었고, 깨끗한 식수나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때때로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당국이 난민들을 국제법 체계 안에서 정당하게 보호하고, 이집트 주변에서 난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amnesty.org, rpegy.org)

◇가나, 예언과 은사에 빠지는 젊은이들 늘면서 교회 내 갈등 우려돼

아셈 아웃리치 미션(Asem Outreach Mission) 대표인 은크루마-포비(Samuel Nkrumah-Pobi) 박사는 지난 7월 선교 저널 IBMR에 기고하면서 가나장로교회(PCG) 안에 예언과 은사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교회 내에서 점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세기 서구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가나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같은 교회가 세워졌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오순절 교회들은 영적 은사와 체험적 신앙을 강조했고, 때로는 예언적 기도와 치유 사역을 통해 신비로운 현상들까지 보여주면서 기존 교회들을 끌어들이었다. 라이트하우스 국제교회와 로열하우스 국제교회와 같이 번영, 치유, 해방을 목표로 하는 오순절 교회는 도시 지역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가나인들에게도 꽤 인기가 많다. 현재 가나에서 오순절 교회는 기독교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적 갈망과 맞물려 크게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도 예언적이고 은사적인 부분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은크루마-포비 박사는 가나장로교회가 이들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 안에서 은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일깨워 주고,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충족과 신학적 역동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나장로교회가 젊은 세대의 영적 갈망을 존중하면서도 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지혜롭게 계승해 나가고, 갈등을 넘어 영적 역동성과 복음의 본질을 불드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IBMR 50, no. 3)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항공 사진. 아프리카에서 인구 1천만 이상 메가시티가 현재 3개에서 2050년 다르에스살람을 포함한 17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어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공격으로 희생된 27명의 장례식이 지난 8월 1일 거행됐다. 6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테러와 공격으로 기독교인 22,83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CSI

◇나이지리아, 지난 6년간 테러와 공격으로 기독교인 2만 2천 명 숨져

아프리카종교자유관측소(ORFA)에서 6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테러와 공격으로 기독교인 22,83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는 광범위한 폭력 사태와 테러, 대량 학살, 납치 등 15,43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총 79,3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군과 테러단체를 제외한 민간인 사망자는 42,033명

이었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은 22,835명이었고, 무슬림은 10,519명으로 나타났다. 풀라니 무장세력은 민간인 사망과 관련하여 전체 사건의 44%에 해당하는 공격과 테러를 유발했고, 신원 미확인 단체에 의해서 32%, 보코하람 또는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WAP)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12%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州)는 카두나, 베누에, 보르노, 잠파라, 플레토 순이었다. 상위 5개 주에는 전체 민간인 사망자 수의 53%를 차지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망한 곳은 베누에, 카두나, 플레토, 니제르, 보르노 순으로 나타났고, 무슬림 민간인은 잠파라, 보르노, 카트시나, 니제르, 카두나 주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나이지리아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상처 입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경향이 더해져 소망을 끝까지 붙들도록 기도하자. (출처 orfa.africa)

◇나이지리아 선교단체 목사 3명, 납치된 지 22일 만에 풀려나

6월 14일,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오요

(Oyo)주에서 나이지리아성경연합(SUN)의 전국대표와 관계자들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코스모스(Uwem Cosmos) 목사와 일행은 성경연합 캠퍼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성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코스모스 목사와 오냐에나그바가(Onyenaghbagha) 목사, 그벵가(Gbenga) 목사와 두 딸, 홍보 담당자인 엘리아(Elijah), 전국대학생대표 토미신(Tomisin), 운전기사 등 8명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들은 7월 6일에 모두 무사한 상태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성경연합은 나이지리아에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이다.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학살과 테러가 끊이지 않으면서 7월 9일에 유럽의회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향해 테러 방지 조치를 취하고, 보코하람과 풀라니 세력과 같은 가해자들의 처벌과 민족 문화를 근절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7월 15일 미국 하원에서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보호와 종교적 폭력 대응 조치를 취할 때까지 원조를 100%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납치와 테러,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말려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vom.com.au, www.europarl.europa.eu)

◇부르키나파소, 종교 활동의 자유와 규제들 동시에 다루는 법률 단행해

부르키나파소 군사정부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세속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법률을 단행했다. 지난 6월, 부르키나파소 과도 입법의회는 종교 단체에 대한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면서도 각 종교별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자유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 트라오레(Ibrahim Traoré) 대통령은 펄스 나이지리아(Pulse Nigeria)를 통해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샤리(아이슬람법) 시행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종교 교육에 있어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에 관계없이 국가 내 모든 청년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에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에 오른 트라오레는 종교 교육에 대한 외국의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군 투입으로 계속 맞서고 있기

도 하다. 현재 부르키나파소의 종교 분포를 보면 무슬림이 64%, 가톨릭이 20%, 개신교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세속주의 강조는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 이후 지난 4년 동안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북부와 동부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피해 피난을 떠나야 했다. 폭력과 박해로 흩어진 교인들과 폐쇄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종교자유법을 계기로 복음 전도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daily.com)

◇동아프리카, 국제 원조 삭감으로 HIV 의료 서비스까지 축소돼

2025년 1월부터 아프리카에서 HIV/AIDS 감염환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올해 7월 국제 원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초고리아병원(Chogoria Hospital)은 케냐의 므웜비(Mwimbi)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HIV 클리닉 중 하나인데, 원조 기금이 50% 삭감되면서 인력 감축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축소해야만 했다. 농촌 마을 곳곳을 찾아가 의약품과 약물 배송을 책임졌던 보건 인력 29명 중에 현재는 14명이 남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감염환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올해 집까지 불에 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49세의 므웜드와(Florence Mwendwa)는 병원에 갈 교통비조차 없어 보건 인력의 방문 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잠비아교회보건협회(CHAZ) 회장인 시칭가(Karen Sichinga)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HIV 치료환자 11만 6천 명을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의 마차선교병원(Macha Mission Hospital)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구티칠랄라(Sydney Gutichilala)에 따르면, 원조 기금 삭감 이후 병원은 더 이상 방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원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필요한 재정과 의약품이 공급되고, 기독교 병원과 의료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말려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美서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 캐나다서 난민 지위 얻어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던 중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추방된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 아르테미스 가셈자데(Artemis Ghasemzadeh)는 최근 캐나다에서 망명을 인정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란을 탈출한 기독교 개종자인 가셈자데는 2024년 12월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샌디에이고에서 구금됐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과도 분리됐다.

가셈자데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란인 기독교인 11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해외 재정착 정책에 따라 입국 약 두 달 만에 파나마로 추방됐다.

파나마 정부는 가셈자데를 비롯한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셈자데는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캐나다 망명을 추진했다.

가셈자데의 미국 추방은 종교 자유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단체는 가셈자데가 망명 신청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신뢰할 만한 공포(credible fear)' 심사를 받지 못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셈자데는 국제 기독교 인권 감시기구(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에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징역형이나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셈자데의 사례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아사민 안사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른바 '아르테미스법(Artemi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CPC)'으로 지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이 추가로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아직 미 하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히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국가로 평가돼 미국 국무부의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란 내 기독교인과 양심수에 대한 처우 역시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캐나다 부부의 후원으로 새 삶 시작
가셈자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캐나다의 한 부부가 그의 사연을 접하게 됐다. 이안과 나옴이 엘리엇 부부는 가셈자데가 캐나다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 나섰다.

그러나 2025년 민간 난민 후원 프로그램의 정원이 이미 소진돼 가셈자데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부는 수개월 동안 기도했



이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오픈도어

고, 이후 한 난민 재정착 기관으로부터 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엘리엇 부부는 가셈자데의 남동생이 미국에서 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미국인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비용 2만5천 달러를 지원받았다.

가셈자데는 캐나다 정부가 망명을 승인한 지 한 달 뒤인 7월 초, 밴쿠버 인근 덴턴 아일랜드에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가셈자데는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내가 정말 이곳에 와 있고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제야 고난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셈자데 외에도 미국에 입국한 뒤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인 기독교인 자매인 마한 모타하리과 모잔 모타하리는 지난해 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구금됐다. 현지 공항에서 출국 관련 단속을 벌이던 미국 국경순찰대가 두 사람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2022년 미국에 입국한 뒤 세례를 받은 이들 자매는 올해 초 석방됐다. 담당 판사는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성공회의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로운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기자

닉 부이치치의 삶과 신앙 담은 영화 ‘노 림스, 노 리미츠’ 예고편 공개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복음전도자이자 동기부여 강사 닉 부이치치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영화 ‘노 림스, 노 리미츠(No Limbs, No Limits)’의 새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9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극장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과 외로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 희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예고편에는 미국의 기독교 음악 듀오 포 킹 앤 컨트리(for KING + COUNTRY)의 곡 ‘미라클(Miracle)’이 삽입됐다. 어린 시절 부이치치의 모습과 함께 팔과 다리 없이 성장하며 또래 친구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겪었던 고립감도 담겼다.

부이치치는 예고편에서 “아무도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선생님과 함께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43세인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태어나 선교단체 ‘닉비이 미니스트리스(NickV Ministries)’를 설립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포 킹 앤 컨트리의 최신 앨범에 수록된 ‘미라클’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형성해온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미라클’을 처음 들었을 때 걸음을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엘과 루크가 내 삶의 사명을 규정해온 메시지를 담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기적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로 설명됐다.

부이치치는 네 개의 팔다리가 모두 없는 희귀 선천성 질환인 사지무형성증(tetra-amelia syndrome)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움과 학교폭력,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경험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여러 차례 간증해왔다.

‘노 림스, 노 리미츠’는 과거 영상과 가족 인터뷰, 사역 현장의 모습을 통해 부이치치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기적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오늘이라도 내게 팔과 다리를 주실 수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면, 그분은 내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고난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천국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내 간증을 통해 기독교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부이치치는 87개국을 방문했으며 37명의 국가 정상과 만났다. 각국 정부 관



닉 부이치치. ©The Christian Post

계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의 사역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전도 집회를 통해 약 15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기로 결단했다.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이치치는 밝혔다. 현재 아내와 자녀를 둔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신앙적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나를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어쩌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었다”며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이치치는 학교폭력의 경험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당신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부이치치는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고 두렵게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외모와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몇십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 플랫폼으로 인해 외로움이 하나의 전염병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완벽해 보이고 완벽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에 맞서는 것뿐 아니라 외롭거나 소외돼 보이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을 권했다.

부이치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을 보면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며 “때로는 친구를 얻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며 “그러나 사랑과 격려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가치를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어려운 문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계속 일관되게 자녀에게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해줘야 한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큰 꿈을 꾸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말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이치치는 부모들이 자녀의 영적·정서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 우울감과 불안으로 힘겨워할 당시 부모와 두 형제가 그를 어떻게 지지했는지도 담길 예정이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말씀을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이치치는 “자녀들이 이 문제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부모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 기독교 박해 지속… 해안가 교회 대상 습격 잇따라

헌법상 종교 자유 보장 불구 무슬림 다수 지역서 차별 심화…
국제 인권 단체 당국 개입 촉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반자치 제도인 잔지바르를 비롯한 해안가 일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교회 습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9월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이들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잦은 위협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기독교

인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신앙생활 자체를 위축시키는 광범위한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자니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지 인권 단체들은 무슬림 다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인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선교 단체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5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잔지바르와 탄자니아 해안 지역의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서조차 기독교 활동을 조직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 펌파와 응구자 등 탄자니아 전역에서 최소 10개의 교회가 방화나 기물 파손 등의 물리적 공격을 받았으며,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회 대상 훼손 및 부당한 행정 규제… 사법 당국 방관 지적
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당한 행정 규제도 주요 핍박 사례로 지목된다. 세계기독교연대(CSW)의 2025년 11월 브리핑에 따르면 잔지바르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건립 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지 무슬림 지역사회의 동의를 강요받고 있다. 행정 당국의 등록 절차 지연으로 교회가 불법 운영 혐의를 받거나 합법적 허

가를 얻은 후에도 소송에 휘말려 재판이 연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Harvest Ministries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2025년 평가 보고서에서 잔지바르와 탄자니아 해안 지역의 교회들이 자체 예배당 안에서조차 기독교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Harvest Ministries

가를 얻은 후에도 소송에 휘말려 재판이 연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물리적 습격 사건들은 현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CSW는 지난 2020년 2월 음람보니 지역의 갈보리 선교 교회가 무장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필레몬 마필릴리 목사 부부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범행 전 한 지역 공무원은 마필릴리 목사에게 무슬림 지역사회가 교회를 원하지 않으니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의 핍박과 더불어 사법 당국의 방관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대의 2022년 보고서에서 가명을 사용한 데릭 주교는 종교파적 폭력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슬림 사법 공무원들의 편향된 태도가 평등한

종교적 재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담 목사 역시 정부가 개입해 모든 종교가 보호받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앙을 바꾼 개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척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극심한 괴롭힘과 협박에 직면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교회 또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오픈도어즈와 CSW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탄자니아 정부가 무슬림 다수 해안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독교 박해를 근절하고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보호 조치를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파라과이 상원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날’ 제정 법안 예비 통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정… 공휴일 및 학교 기념일
지정 조항은 삭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라과이 상원이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하며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적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리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9월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의 수정안 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제출된 원안은 마르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을 기념해 매년 10월 31일을 기념일로 제안했으나 상원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날짜가 수정됐다. 오를란도 페네르와 리사렐라 발리엔테 등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가 국가의 역사와 문화 사회 교육 영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네르 의원은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 협회의 요청으로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회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 및 학교 기념일 지정 무산 상원 심의서 적용 범위 축소

CDI는 상원 심의를 거쳐며 당초 법안이 담고 있던 적용 범위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밝혔다. 상원이 승인한 최종 수정



파라과이 상원은 ‘복음주의 교회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하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amber of Senators of the Republic of Paraguay

안에 따르면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날’로 지정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국가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초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을 배제했다.

교육 기관에서의 의무적인 기념 활동 내용도 제외됐다. 교육부 산하 예배 차관실을 통해 해당 기념일을 국가 학교 달력에 추가하고 교육 기관의 기념 활동을 장려하려던 조항 역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파라과이 하원이 현재의 상원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이 기념일은 국가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선 학교에서도 관련 행사를 의무적으로 열 필요가 없다.

◆파라과이 기독교 위상 강화 속 교계 내부 명칭 등 이견 분출

적용 범위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예비 승인은 파라과이 기독교 및 복음주의 공동체 전반에 걸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는 그동안 교육과 의료 인도주의적 협력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오랜 헌신의 역사가 입법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입법을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파라과이 기독교계 내부의 엇갈린 시각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원 회의 중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전체 복음주의 그룹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음주의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존중해 의회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교회들이 먼저 기념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교단에서는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파라과이 복음주의의 루터교회와 리버플레이트 복음주의 교회는 국가가 개신교의 헌신을 인정하는 행보는 환영하지만 독일어권 루터교 공동체의 역사적 기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념일 명칭을 ‘개신교 종교개혁의 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 협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가 복음주의 교회가 쏟아낸 영적 사회적 헌신을 세상에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입법의 진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니엘 최 기자

파키스탄 법원, 13세 기독교 소녀 양육권 납치 혐의 남성에게 넘겨 논란

나이 조작·강제 개종 의혹에도
가해자 측 손 들어줘…인권단체
“아동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파키스탄 법원이 13세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시키고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무슬림 남성에게 소녀의 양육권을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현지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이번 결정으로 피해 아동이 추가 범죄의 위험에 놓였으며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피해 아동 엠버 나딤의 어머니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파이살라바드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소녀의 나이와 강제 개종·결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양육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령 감정 전 가해자에게 양육권 넘겨

인권단체 ‘정의의 목소리’의 조셀 안센 의장에 따르면 엠버는 지난 6월 12일 무슬림 남성 모신 리아카트에게 납치됐다. 경찰에 구조된 엠버는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리아카트는 체포됐다. 엠버는 같은 달 27일 열린 초기 심리

에서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성인이라고 진술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엠버가 2008년생의 18세 성인이라고 기재된 개종·혼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엠버의 부모는 자신들이 2012년에 결혼한 점을 들어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반박했다. 치안 판사는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검정을 지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엠버를 정부 보호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그러나 라나 소하일 판사는 연령 감정 결과가 제출되기 전에 엠버의 양육권을 리아카트에게 넘기고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엠버가 자발적으로 개종·결혼했으며 납치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새로운 진술서를 받아들였다.

인권단체들은 가해자 측이 엠버에게 개종을 철회하면 배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정황이 있다며 강압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 가족 인권단체, 서류 위조 수사 촉구

엠버의 어머니는 출생증명서 위조 혐의로 가해자 측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족은 엠버의 실제 나이를 입증할 가족등록증명서를 제출했으며, 혼인증명서 무효화와 결혼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아크말 바티 파키스탄 소수자연대 의장은 판자브주 아동결혼제한법이 아



파키스탄 소수자연대(MAP)의 아크말 바티 의장이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발언하고 있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동 강제결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룬 마이클 변호사도 정부와 경찰, 사법부에 서류 위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파키스탄에서 납치와 강제 개종, 아동 결혼,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본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 소녀들의 사례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만 210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83% 이상이 미성년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12.8세였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2026년 세계감시목록’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여덟 번째로 심한 국가로 지목했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용혜인 “우려 알고 있어… 정책 성과로 증명하겠다”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엔 “청문회서 입장 전달”…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임신중지 약물 입장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우려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속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살부터 청년 사회운동가로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견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미래를 제시하는 일을 해왔다”며 “성평등부가 젊어져

야 할 과제도 정확히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듣고 또 듣겠다”며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자명한 진리를 정책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엔 “청문회서 생각 정리해 전달”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는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여성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에서 보완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 “사회적 속의 과정 만들 것”

의원 시절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용 후보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는데 가족제도의 틀 안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만나면서 법을 만들었다”며 “우선 실패를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이나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사회적 속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의 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신속 도입… 남성 어려움도 정책에 반영”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

다는 뜻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부에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 역시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 공백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문제만 다뤄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은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성평등부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선관위 특검보 5명 첫 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본격 수사 준비

이재명 대통령, 박혁·김은정·김상천·권관환·김진우 임명… 특검팀 최대 165명 규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5명이 2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상천 특검보를 비롯한 선관위 특검팀 특검보 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김 특검보는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특검보도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받아 정한 수사 기간 맡은 소임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청장공수처 경력 갖춘 특검보 5명

박혁 특검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고, 권관환 특검보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 변호사와 김은정 변호사, 김상천 변호사, 권관환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등 5명을 선관위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

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지냈다.

권관환 특검보는 10년간 경찰로 근무한 뒤 검사로 임용됐으며,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대 165명 규모… 파견검사 7일까지 합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러질 수 있다. 파견검사들은 오는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준비기간에 들어간 특검팀은 검정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 검토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된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뉴스시스

에 현장 보존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7일부터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 수사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위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모두 12개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의혹들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까지 가능하다. 박용국 기자

정교모, 특검에 ‘6·3 선거 투표지 과학·공개 검증’ 청원

비파괴 감식·검증 기준 사전 공개·실시간 중계 요구

“부정 있었다면 드러내고, 없었다면 과학으로 증명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026년 6·3 선거 투표지와 투표함 감식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제출한다.

정교모는 2일 오전 10시 서울 교대역 인근 특검사무실에 ‘2026년 6·3 선거 투표지 감식에 있어 과학 검증 및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교수 6300여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정교모는 특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을 감식할 때 육안이나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 기준과 절차, 증거자료, 결과 등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전투표지를 더욱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청원서에 담겼다.

◆투표용지 지질·인쇄 방식·일련번호 검증 요구

정교모는 특검이 위조나 훼손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해 ‘비파괴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거 재검표에서 이례적인 투표지가 발견돼도 육안 관찰에 의존해 판단한 것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관찰자의 주관에 배제하고 제3자가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감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정교모는 검증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한 투표용지의 계약 사양서와 시험성적서, 미사용 투표용지, 투표용지 발급기 사양, 기표용구와 인주의 성분 규격 등을 표준자료로 확보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투표용지의 평량과 두께, 형광 반응, 적외선 투과반사, 섬유 분포, 표면 광택 등을 측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투표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쇄 상태와 기표 인영은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자외선 장비를 활용해 인쇄 방식, 도트 형태, 문자 가정자리, 인주 성분, 기표 압력의 흔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수량과 일련번호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투표한 투표지와 사용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의 총량을 인쇄 수

량과 대조하고, 사전투표지 바코드와 발급 기록을 비교해 결번이나 중복번호, 발급 기록이 없는 투표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검증 절차·원자료·결과 공개 촉구
정교모는 감식에 착수하기 전 측정 항목과 장비, 판정 기준, 표본 설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식 현장의 실시간 중계와 여야 추천 전문가, 학술단체 전문가, 시민 참관인의 입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스캔 이미지와 계측 수치, 판독 결과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자료를 공개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재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이야말로 가장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개될 때에만 이 문제를 비로소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교모가 청원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방법”이라며 “선거부정 조작이 있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없었다면 과학이 이를 증명해 지금까지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비파괴 과학 검증과 공개 검증을 감식의 표준 절차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주님, 제가 경찰 선교사입니다”



최선 박사
SBCM KOREA 대표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금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이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며 힘들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라임을 잊지 말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사명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크리스천 경찰관들은 자신의 삶과 직장이라는 선교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다하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경찰기독교선교연합회는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심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전 11:8)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김영태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서울경찰청교경협의회(지도 지춘경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서울경찰청의 윤영민 목사, 장진수 목사, 최선 목사, 김희곤 목사 외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전국 경찰관 선교회의 중보기도와 경찰선교 현장에서 말씀과 헌신으로 섬기는 교경 목사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김영태 목사의 강의를 ‘나의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사단, 이 세상 임금’, ‘복음이란’, ‘구원하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법’, ‘하나님 나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 말씀 앞에서 경찰관 선교회원들은 구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선교의 사명은 자기부인을 통한 ‘예수혁명’에 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결단이 필요하다.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는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 세미나는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



서울경찰기독교선교연합회 서울중앙경찰서 정석용 경정(왼쪽)과 최선 칼빈대학교 대우교수



서울경찰기독교선교연합회 단체사진

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참된 메신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성령과 권능을 부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그러므로 말씀은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을 먹고, 믿음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요 11:44).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변화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가정과 교회, 직장 and 사회로 이어지고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

서울경찰기독교선교연합회 캠프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깨우고 훈련하여 경찰 조직과 이 나라,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메신

저들을 세워가는 자리였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 119:105).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선포하며 기도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전도한다.

특히 경찰이라는 사명의 현장에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동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경찰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결단을 갖게 했다. 경찰관에게 경찰서는 단순한 직장만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맡겨진 사명의 현장이며, 크리스천 경찰관에게는 동시에 복음을 살아내야 할 선교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한다. “예수경찰, 크리스천경찰, “주님, 제가 경찰 선교사입니다.”

경찰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다는 결단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다시 자신의 사명을 붙들며 결단하는 경찰 선교사들의 모습은 감격적이다.

특히 감사한 일도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고등학교 동창인 서울중앙경찰서 정석용 경정(청문감사인권관)을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이 있었다. 긴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친구를 바라보며,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사명의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경찰관들이 있다.

경찰이 바로 사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안전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찰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동시에 크리스천 경찰관들은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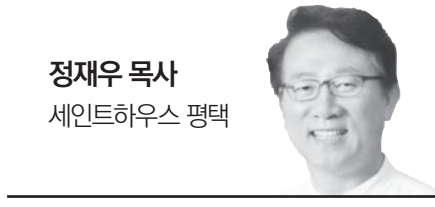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경찰 한 사람이 동료와 조직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심자가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대한민국 경찰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 경찰 곳곳에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람으로 섬기며 생명을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참된 경찰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서 있는 경찰서와 치안의 모든 현장이 복음의 사명지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변화가 동료를 변화시키며 경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경찰 선교사입니다.”

경제와 군사 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펄터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날이다. 1876년 8월 29일 태어난 백범은 1949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150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25년 제43차 총회에서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한국 인물로는 정약용, 김대건 신부에 이어 세 번째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꿈꾼 평화와 문화의 가치였다.

마침 오늘 국민일보에는 우성규 종교부장의 「백범의 사무사」가 실렸다. ‘사무사(思無邪)’는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뜻이다. 백범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깊이 다가온다. 그의 생애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삶이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동학에 입교했고, 차하포 사건으로 투옥과 사형선고를 겪었다. 탈옥 후 마곡사에서 출가하기도 했으며,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여

교육과 계몽운동에 힘썼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국무령을 거쳐 주석에 올랐다. 한일합방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이끌었고, 한국 광복군 창설에도 힘을 보탰다. 해방 후에는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암살당했다.

백범은 독립을 단순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주독립과 민족통일,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을 함께 꿈꾸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 독립된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

고 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의 신앙 역시 삶의 장식이 아니었다. 유교와 동학, 불교를 거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고백했다. 신앙은 조국 사랑과 이웃 사랑, 희생과 책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백범을 오늘 다시 읽게 하는 가장 놀라운 대목은 정치보다 문화다. 그는 강한 나라를 원했지만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족하고, 경제적 부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나라를 꿈꾸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라. K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음식과 한글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백범이 1947년 「나의 소원」에서 꿈꾸었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범 탄생 150주년인 오늘, 그의 질문은 정치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남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진영의 승리보다 국민을, 권력보다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물음이다.

만약 백범이 해방 직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소 대립과 좌우 갈등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의 뜻만으로 분단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세계를 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강한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지만, 아름다운 나라는 문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백범이 남긴 가장 오래된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신기하지만 인간은 신비하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이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챗GPT나 제미니 같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던 저도 결국 더 나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던지고, AI가 제공한 자료를 읽은 후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봉사하고 있는 재미한인기

독선교재단(KCMUSA)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네 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프로그래밍, 방송, 행정, 법조계는 물론 학교, 의료와 예술 계까지 끊임없이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AI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AI를 목회에서 코파일럿—비서나 보조 도구—으로 사용하기,” “AI의 현재와 그 이후,” “AI는 신기하지만 숭배하지는 말라,” 그리고 “AI와 신구약 성경 연구”에 대한 강의는 도전적이고 유익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생활세계의 일부가 되고 신앙생활과 목회에서도 협력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AI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는 한 신문 기자는 여러 AI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답변을 비교·평가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서로 다르면 “왜 다르

냐,” “왜 틀리냐,” “왜 부족하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는 AI에게 반말로 질문한다고 합니다. 저도 바쁠 때는 반말로 명령하지만, 좋은 자료를 얻고 기분이 좋으면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고맙다,”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AI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다 보면 문득 AI가 사람처럼 의식을 가진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AI에게 직접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AI는 자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가 제공한 질문과 자료, 그리고 그동안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네가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I는 분명하게 “자의식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답변은 인간처럼 실제로 체험하거나 감정을

느껴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학습된 정보와 대화의 맥락에서 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분석하여 생성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인간처럼 생리현상을 경험하는 신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시공간 속에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을 경험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AI는 고도로 발전된 연산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배고픔과 아픔, 기쁨과 슬픔, 좋아함과 싫어함, 끌림과 거부 같은 느낌과 희로애락을 인간처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할지 모르지만 사랑, 애국심, 정의감, 신앙, 희망, 열정과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에 자신의 선택에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만일 AI가 정말 자의식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면, 언젠가

는 그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제기될 것입니다.

AI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기준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AI는 고도의 연산과 언어 능력을 사용하는 지적 도구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AI를 인격으로 격상시키거나 신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질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으며, AI는 인간이 던진 질문에 응답하여 학습된 세계를 새롭게 조합하고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기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무리 편리하고 강력하고 신기하더라도, 주인이 도리어 그 도구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합

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하기 위한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AI의 능력에 놀라는 동시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더욱 깊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사 49:5)는 고백은 기계의 연산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신앙고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AI는 신기하지만 신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를 신비화하기보다, 그 기계를 만들어 내고 사용하며 그 사용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신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순서가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지만, 그 말씀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 설교는 믿는 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교회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할 점이 있듯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일에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듣는 자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유명한 설교자이고 말씀을 잘 전한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매우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

은 설교를 듣는 것과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자신의 신앙적 성숙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신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부심과 만족감은 자칫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각자 선호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말씀 사역자들은 오늘날처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목회자로 섬기기보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사역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호가 사람을 높이고 편을 가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더 옳다,” “아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깊다,”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지만, 바

울은 오히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든 바울은 무엇이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설교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어 바울은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건물 세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 건물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설교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자의 사명에 적용해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설교자가 평생 수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한 영혼의 믿음을 실제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시험과 유혹과 환난의 불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십수 년 전 감사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어느 새벽기도

회에서 시험과 실측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성도님들은 새벽기도회에서는 위로와 소망, 용기를 주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하다면 주제가 다소 무겁고 강하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믿고 가장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타교회를 섬기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감사한인교회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수 년이 흐른 지난주, 비즈니스 심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간 곳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방문한 가게에 스시맨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시 그분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되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

매파며 특별 서비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설교자의 삼십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고,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주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도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편한 말씀, 위로만 주는 말씀, 박수 받는 말씀만 전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정죄하여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키게 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게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설교자의 말이 한 영혼에게 신앙의 혼란을 주거나,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할 명분을 제공한다면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 혹시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나에게 거저된 안정감만 주는 말씀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책망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불편하나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단단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축복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곱씹어야 하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회개하게 하는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설교자도 조심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보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듣고 싶은 말씀만 찾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하고 들었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불에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삶을 나누는 이유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촌교회



나의 약한 모습, 실패한 이야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꺼내 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러내면 판단 받을 것 같고,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소모임에서 조자도 잘 지내는 척, 문제없는 척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 소모임은 형식만 남은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할까요? 소모임에서 삶을 나누는 것은 자신을 드러냄으로 본인과 소모임 시구들에게 변화해 갈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나눔의 목적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냄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깨면 때, 그 고백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던 짐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옆에 앉은 식구에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위로가 됩니다. 내 솔직한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오랜 외로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소모임의 목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목장식구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만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나눔은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지, 함께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주 소모임부터는 잘 해 오셨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이런 것이 힘들었어요”라는 한 마디가 소모임을 치유의 현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한 마디가 옆에 앉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누리는 생명의 역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아치는 냉정하고 선명하여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어놓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인의 부장함이 예수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여인이 치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엘 무디'입니다. 그는 사카고의 빈민지역에서 주일학교와 전도 사역으로 19세기 후반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과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인물입니다. 1841년, 17세였던 무디는 돈을 벌기 위해 보스턴으로 올라와 삼촌의 구두 점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삼촌은 주일예배와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디는 보스턴 마운트 번을 회중교회로 주일학교에 참석했는데, 당당 교사자 바로 '에드워드 킵백'이었습니다.

나다. 당시 무디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 성경 지식도 전혀 없었던 가장 어두운 학생이었습니다. 교사인 에드워드 캄벨 선생님은 무디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뒷방까지 직접 찾아가 예수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었고, 무디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마치 생명의 빛이 임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쌓였던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반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해서 숨 쉬고, 몰라시고, 밥 먹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시기에 그 역사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과거 받은 은혜만을 추억하며 반복하지 않으면 생명이 누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복 받은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미요 압몬 사람이라”(왕상14장21,31)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어머니가 왜 중요하니까? 반복을 가르치는 존재로 습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교인 기도원생령대 만회가 새가경동체 주관으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영적인 반복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社説

左右 모두 고개 젖게 만든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성평등가족
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야권,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
까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차녀교육본부모임
합 등 28개 여성 인권단체는 “국민 통
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
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
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함 결점”이
며 성평등부 장관에 그를 지명한 이재
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전통
적 혼인과 가족 체계 해체 △동성혼
합법화 추진 △젠더 갈등 조장 △역차
별을 야기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정책
에 차유진 인통에게 어떻게 여성과 아
동, 청소년, 가족의 연위를 맡길 수 있
겠느냐는 거다.

한기총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특정 이념을 앞세워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국민적 합의

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용 의원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
 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지지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안수사권 완전폐지에 앞장서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자극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 후보자가 지난
21, 22대 의정 활동 과정에서 대표 발
의한 총 116건의 법률안 중 여가위성
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이다. 한마디
로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현안과 소
관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용 후보자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것도 논란 증폭의 원인이다.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고 이유를 댔는데 그 말은 1년에 11억이나 되는 국가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관도 하고 싶고 국가보조금도 계속 받아야 해서 비례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주장이다. 그럼 국가 장관도 사직하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에 1년에 1억씩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렇게 당을 지키고 싶으면 장관직을 고사했어야지 장관도 하고 싶고 국비 보조도 계속 받겠다는 게 과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는 참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다.

을 후보자를 둘러싸고 쏟아지는 전방위적인 역풍의 실체를 분석하면 이념과 정책은 둘째치고 우선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성은 물론 자질까지 부족해 보이는 좌파 청년 정치인을 굳이 입각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좌우 진영 모두가 그의 몰염치와 불공정에 고개를 가로뚫고 있다는 걸 이명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쪽 뺀 '정교 유착' 수사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국민회의 권선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같은 해 국민회의 의원들에게 총 14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한 종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횡탈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3년에 못 미치는 판결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통일
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

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과 '간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통일교와 관련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8개월여 정교 유착 비리 합수본의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 활동이 종료됐다.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 16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1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세수 부산시청에 대한선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수본은 신천지 청년회장이 “국민

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순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지와 관련해 국민당의 당사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민주당의 가입 정황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자는 기소하고 여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문건 선택적 수사의 오점을 남겼다.

정권과 종교계가 권력과 세력 확장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정교 유착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러라고 성역 없는 수사 권한을 합수본에게 줬던 건데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활동을 끝낸 거다. 이러고서야 정교 유착의 그 깊은 뿌리를 어떻게 발본색원하겠나.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하트-하트재단, 제10회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 성료

지난 10년간 326개 단체 3,313명 참여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은 국내 최대 규모 발달장애인 음악 경연 축제인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reat Music Festival, 이하 GMF)'가 9월 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SK이노베이션, SM C&C가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약 1,000석 규모의 객석이 3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GMF의 위상을 보여줬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GMF에는 전국 예

선에 36개 팀이 참가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연주단체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서울-경가대구-김해-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본선 진출팀들은 클래식, 국악,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음악적 기량과 각 팀의 개성을 펼쳤다.

본선 무대에는 ▲국악예술단 '손울림' ▲남산ART 오케스트라 ▲라운 트리오 ▲아비앙포 ▲지캡밴드 ▲하음오케스트라가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심사위원장은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김현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송재영 반체로 이사, 이병욱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윤



제10회 GMF 수상자 단체사진. ©하트-하트재단

정 경희대학교 교수 등 국내 음악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사회는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기리가 맡았다. 또한 제9회 GMF 대상 수상팀인 '그린앙상블'과 '싱어게인4'

준우승자 '그윈 도라도'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GMF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지난 GMF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10주년 특별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관객들

에게 지난 1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 대상의 영광은 '남산ART 오케스트라'에게 돌아갔다. 남산ART 오케스트라는 "올해 대상을 받아서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켜봐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상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지난 10년간 GMF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발달장애인 연주단체의 창단과 성장을 이끄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로 지역사회 기반 음악교육과 합주 활동이 확산되며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혀왔다. GMF를 통해 발굴된 수상단체들은 서

울시립교향악단 협연과 청와대 영빈관 공연을 비롯해 GMF In USA·Hungary 축하공연, 뉴욕 UN 세계 장애인의 날 초청공연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문 연주단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은 "10년 동안 GMF와 함께 온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의 도전과 성장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치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해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초록우산,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공간 속 아동·청소년 보호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등 논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디지털 공간 속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플랫폼 설계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논의를 촉구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우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윤금남 디지털안전센터장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의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를 주제로, 현재 디지털상 아동·청소년의 위험이

콘텐츠 속성과 무관하게 서비스 설계와 이용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대응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평가 대상과 적용 범위 ▲평가영역과 핵심지표 ▲평가 절차와 운영 방식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의 4개 축을 중심으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재 연구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한승태 리더,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웅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위원회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등이 참여해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향후 초록우산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안전설계와 관련한 위험평가 제도 법제화, 실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성 있는 연영확인제도 마련,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자녀보호장치 강화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위험평가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아동은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촉구를 비롯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배우 정일우,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과 아동 위해 굿네이버스에 기부

굿네이버스는 배우 정일우(사진)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홍수 피해 지역인 네팔 누와코트, 고르카 등에서 진행 중인 긴급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홍수 및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긴급구호 대응단을 중심으로 초등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누와코트 이재민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위생용품 등 물품 배분을 시작했다. 피해 지역의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아동 친화공간을 구축하고 심리사회적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배우 정일우는 KBS '바다 건너 사랑' 마다가스카르 편 촬영을 통해 현지 아동과 지역 주민을 직접 마주한 이후 굿네이버스와 인연을 맺고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데이'에 시구자로 참여해 아동의 꿈을 응원했으며, 이후 온라인 캠페인 내레이션에도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정일우는 굿네이버스 특별 회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에 등재된다. '더네이버스클럽'은 연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중 특별한 나눔

활동을 통해 후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모임이다.

정일우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아동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대홍수 피해 아동과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정일우 배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피해 지역 아동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닿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참여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이 가장,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배우 정일우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시작으로 '해를 품은 달', '야경꾼 일지'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왔으며, 지난 1월 종영한 KBS 2TV '화려한 날들로 '2025 KBS 연기대상' 장편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일 본 첫 진출작인 프리임 비디오 드라마 '범죄자에 출연하는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나래 기자



굿피플, 12일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기부 마라톤에는 약 3600명이 참가해 5km와 10km 코스를 달린다.

참가비 전액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

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가수 선은 행사 앰버서더로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달린다.

행사 현장에서는 가수 KCM의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전 7시까지 집결해 출발을 준비한다.

이나래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망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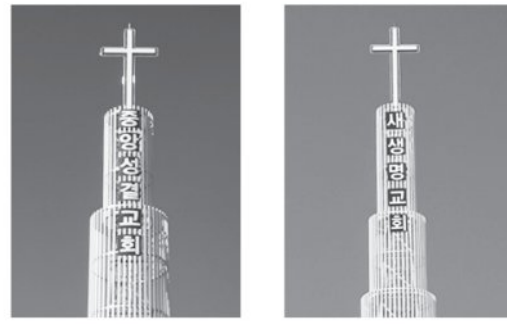
-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겹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도록 부르며 외우고 다닌다. 한마디로 놀이가 된 것이다. 그리스
 스 어린이들은 이 문학을 접하면서 자랐으며 커서도 이러한
 문학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서서
 시는 아이기에 남아 세상을 이해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뒷세이아』는 구약성경과 유사점이 많다. 유대인들은 게
 전 10세기 책이 등장하기 전부터 모세오경(토라)에 음을 넣어
 수없이 많이 외우고 다녔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테필린
 (Tefillin)으로 손과 팔에 감고 다니며 읽는다. 이들에게 성경은
 세상을 이해하는 양식이고 자기의 민족적 종교적 뿌리를 근
 원에 두는 본질 그 자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인이 읽은
 『오뒷세이아』와 유대인의 토라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김응교 외 6인 『오뒷세이아, 성경으로 읽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2)

정경으로 승인된 초기 문서
이처럼 인정된 책들을 오리게네스(245년)는 「호모로구메나」(“인정된” 또는 “승인된”)이라고 불렀다. 이것들은 영감적인 성경으로서 널리 인정된 신약 문서였다. 오리게네스는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1서,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포함시켰다. 그는 히브리서를 「호모로구메나」중에 넣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서신이나 정경적인 서신으로서 인용했다. 실제로 그가 성경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책들은 유다서와 요한 2서,요한 3서 뿐이었다. 교회사가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300-325년경)는 「호모로구메나」가운데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 1서,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을 넣었다. 그는 부주의로 히브리서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문제시된 신약 문서
오리게네스는 이 문제시되었던 책들을 「안타레고메나」(“항변되는” 또는 “논쟁되는”)라고 불렀다. 이러한 책들 가운데 그는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2, 요한 3서, 야고보서, 유다서, 바나바의 외경적인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서, 12사도의 교훈집 그리고 히브리복음서 등을 포함시켰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안타레고메나」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①단순히 논쟁되거나 의심되는 문서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12서, ②확실히 위조되었거나 영감되지 않은 문서로 바울행전, 헤르마스의 목자서, 베드로목시록, 바나바서신 그리고 12사도의 교훈집.

일부 신약 문서를 의심하는 이유
초기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일곱 권의 책들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요한 23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이었다. 몇몇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책들의 인정을 주저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내적인 증거를 근거로 가지고 있었다. ①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문제는 자신들을 사도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요한 23서의 기록자는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서 표현하고 있다. ②히브리서는 기록자 불명이고 바울서신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휘나 문체가 다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은 기록자 불명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와는 어휘나 문체에 있어서 다르다. ③또한 야고보서는 초기의 유대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④유다서는 에녹(1:9; 5:4; 유 1:14, 15)의 외경적인 책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방의 정경 초기 형성
로마의 클레멘스의 증언(AD 96년경) 그가 로마 주교로 있을 당시 고린도교회에 보낸 매우 정평있는 편지에서(제1클레멘스로 알려짐), 그는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지식을 보여 주며 히브리서에 대하여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다.



마르키온의 증언(140년경) 영지주의 이단자로서 그는 다만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중 10편만을 인정했다. 다소 잘못된 점은 있으나 그의 증거는 계몽적이며 교회가 현재의 신약성경을 수집하고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형성케 하고 있다. 헤르마스의 증언(150년경) 그는 매우 정평있는 헤르마스 목자서의 기록자로서 마태복음, 에베소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확증하였다. 아레나이우스의 증언(40-203년경) 그는 청년 시절에 서머나의 폴리카르푸스와 교분이 있었으며, 후일 고을지방 리옹의 주교로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1서, 발레몬서를 제외한 바울의 모든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입증하였다. 무라토리 정경의 증언(172년경) 이 단편문서는 1740년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도서관에서 이탈리아인 무라토리가 발견했다. 삭제된 처음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었다. 이것은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문서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170년 이전의 고대 라틴어역 증언 이것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시대 이전에 첨가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들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증언(150-222년경) 이 카르타고의 다작의 라틴 작가는 사복음서, 13편의 바울서신,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1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나바라고 하면서 이를 넣지 않았다. 키프리아누스의 증언(200-258년경) 카르타고 주교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견해를 따랐다. 그러나 발레몬서, 야고보서, 요한

23서, 유다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서방의 정경 후기 형성
히에로니무스의 증언(340-420년경) 그는 라틴어 불가타역의 뛰어난 번역자이며 명성있는 학자로서, 우리가 소유한 신약 정경 모두를 증언했다. 그는 바울에 의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그의 견해는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증언(354-430년) 히에로니무스와는 달리 그의 견해는 모호했다. 그는 문제시되었던 일곱 권의 책을 모두 수락하기는 했으나 성경의 권위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대체로 외경을 포함하여 폭넓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구약 경전 확립에 기여하였다. 교회협의회들의 활동 신약 정경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는 어떠한 협의회에서도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개개의 문서가 지닌 영감적인 가치나 내적인 권위가 그 결정요소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문서의 순수함이나 확실성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4세기 말 이전 어떠한 협의회도 이런 주제에 관해서 아무런 공언도 하지 못하였다. 카르타고 제3차 교회회의(397년) 여가에서 정경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의에서 규정된 사항 중의 하나는 교회내에서는 오로지 “정경으로 인정된” 책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에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목록이 되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것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었다. 히포 교회회의(419년)는 제3차 카르타고 교회회의의 목록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경의 선정

은 개개의 책들이 자체의 가치를 입증한 후 교회 회의에서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동방의 정경 형성
안디옥 주교 이그나티우스(116년경), 서머나 주교 폴리카르푸스(69-155년경), 히에라폴리스 주교 파피아스(80-155년경)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1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증언했다. 12사도의 교훈집(120년경)은 마태복음을 특히 많이 언급하고 대부분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누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사르디스 주교 멜리투스(170년경)는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23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성경을 인용했다. 안디옥의 데오필루스(115-118년경)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입증하였고 이것들은 구약 정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루키아누스(312년에 순교)는 자신의 “안디옥 정경”에서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요한 23서를 제외시켰고, 그가 개역한 구약과 신약성경에서는 유다서를 제외시켰다. 가파도키아의 대 바실리우스(329-379년경)와 나잔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330-390년경)는 요한을 계시록의 기록자라고는 했으나, 이를 제외한 현재의 정경에 있는 모든 문서를 인정했다. 몸스에스티아의 데오도루스(350-428년)는 가톨릭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의 이러한 견해는 콘스탄티노플 정경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루키아누스의 “안디옥 정경”에서 발전된 것으로, 요한2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페슈타(411-435년)도 콘스탄티노플 정경과 유사하였다. 필로크세누스(508년경)가 이 부인된 책들을 첨가하여 시리아 페슈타정경을 개정하고부터 콘스탄티노플 정경의 그릇된 영향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정경의 초기 형성
순교자 유스타누스(100-165년경)는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중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히브리서를 잘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회고록”이라는 표제가 붙은 마가복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155-215년경)는 현재 신약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에 정통하였으며, 유다서, 히브리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인정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185-253년경)는 많은 논쟁이 되었던 책들(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23서, 야고보서, 유다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인정된 책들(「호모로구메나」)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정경의 후기 형성
프레드릭 케넬 경에 의해 1933-37년에 출판된 3세기 체스터 비티(The Chester Beatty) 파피루스 사본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로마서 다음에 있음), 요한계시록(9:10~17:2 부분만이 보존되고 있다)을 인증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200-265년경)는 야고보서, 요한 2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영감된 성경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을 증언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298-373년)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27권의 신약성경에 대하여 “정경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계속>

더로렘 |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작성자 이종호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Ephesians 5:3 NIV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 among you : 여러분들 사이에
- there must not be : 있어서는 안 된다
- a hint of : (약간의) 여지
- sexual immorality : 성적인 문란
- impurity : 불순(不純)
- greed : 탐욕
- improper : 부적절한
- holy : 독실한

에베소서 5장 3절
그러나 여러분들 사이에 성적인 문란이나 어떠한 종류의 불순, 또는 탐욕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독실한 백성에게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의미와 교훈

여호수아서 연구(4)



권혁승 박사

“은 땅의 주 여호와 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 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쏠여 서리라” (수 3:13)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성 예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 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과정은 인간 이 쌓아올린 성벽이 아니라 요단강이라 는 자연 장벽이었다. 가나안 정복 자체가 그러했듯이 요단강 문제도 여호와 전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곧 앞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승리의 비결 이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들이 멘 언약궤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 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이전 큐빗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뒤따라갔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물은 북쪽 약 25km 떨어진 아담 성을 주변에서 일어나 한 곳에 쏠였다(수 3:15-16). 그렇게 물 흐름이 끊어지자, 이 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강물이 일어나 한 곳에 쏠였 다’는 것은, 지진활동으로 인하여 요단강 양쪽 언덕(고르지역)이 강 주변(조르지역) 으로 무너져 내려 자연적인 댐을 형성하 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요단강 계 곡 지역은 지금도 지진활동이 자주 일어

나고 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은 여 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 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교 훈을 가르쳐주셨다. 곧 이스라엘로 하여 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 게 하신 것(수 4:24)과 하나님께서 모세 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수 3:7; 4:14). 요 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족 속들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여 호와의 손이 얼마나 크고 강한 가를 목 격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내리고 정신마저 잃어버릴 정도였다(수 4:24; 5:1).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사건과 관 련하여 성경은 후손들을 위한 교육적 기 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 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을 선 택하여 마른 땅이 된 요단강 안에서 각 각 하나씩 열두 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 였다(수 4:2-3).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기 념비로 세웠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승 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는 더 큰 목적의 기 념비였다.

후일에 후손들이 그 돌들이 무엇인가 를 묻게 되면, 이스라엘이 기적으로 요 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수 4:21).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단강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 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 에게 이어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되었

다. 교육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재생 산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요단강 사건은 가나안 입국과 출애굽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 적으로 건넌 것이다. 두 사건 모두는 물 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장벽을 기적으로 해결해주셨 다(수 4:22-23).

둘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등한 지도자 임을 확증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 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수 3:7),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어 모세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해야할 지도자 가 되게 하셨다(수 4:14).

셋째는, 두 사건 모두에 교육적 기능의

강조가 있다는 점이다. 출애굽에서는 유 월절을 통한 교육이 관련되어 있으며(출 12:26-27), 가나안 입국에서는 길갈의 돌 기둥들이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수 4:21-22).

여호수아서는 왜 출애굽과 가나안 입 국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시작 이라면, 가나안 입국은 그 구원을 완결시 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 호수아의 새로운 영도력과 그를 따르는 순종의 신앙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다. 여호수아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두 사건의 대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강지윤 칼럼 눈물 힐링



강지윤 박사

요즘 눈물을 흘릴 일 이 너무 많습니다. 국 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에게는 흘러야 할 눈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는 눈물은 모두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 옛날 치유를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이래로 또다시 눈물을 많이 흘리 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몸 속의 물을 모 두 흘러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일정량의 눈물을 흘려야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보니 몸에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마음 속 깊이 슬픔이 쌓이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할 때, 몸이 미리 알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세포마 다 물들을 비축해 놓느라 복수가 차듯 이, 수분으로 충전되어 온 몸이 붓는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량 의 수분이 빠져나가도 금방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몸의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듯합 니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 리는 동안 아픔이 씻겨 나가고, 슬픔이 씻겨 나가고,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눈물 속에 자연치유약도 들어 있

다고 합니다.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조 금 붓고 피로한 것 빼고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데도 눈물을 흘 리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슬프 고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본능입니 다. 그렇게 슬픔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눈 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알아 야 합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TV의 슬픈 소식을 보며 올라오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계 속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 속에서 폭 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 인 슬픔도 함께 올라와 눈물은 더욱 실 새 없이 흐릅니다.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 울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 눈물을 이토록 많이 흘려보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나의 슬픔 때문에도 울어야 하지만, 세상에 가 득 찬 슬픈 사람들의 스토리 때문에도 울어야 합니다. 울음을 가두고 눈물을 흘 리지 못하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딱딱 해진 마음에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슬픔과



그들의 슬픔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토록 많은 물이 흘러나와도 또다시 내 몸은 눈물을 준비합니다. 그만큼 눈 물을 흘려야 세상이 따뜻해지고 나 자신 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눈 물을 흘립니다. 문득 슬픔이 올라오거나, 슬픈 소식들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게 하면, 그 감정을 억 압하지 말고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는 것, 그것은 힐링의 시작입니 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신을 위 해 울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눈물 을 흘려도 내 마음 속의 아픔까지 씻겨 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고통스러운 사회와 국가 전체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이 강박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당신도 모두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느 하나 슬프지 않 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때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 단한 지상에서의 삶이 날마다 슬픔을 길 어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마 음껏 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물이 마 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아이 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아내의 눈물이 남편 을 치유하고, 남편의 눈물이 아내를 치 유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은 눈물이 흘러, 메 마른 이 세상이 촉촉해지고 파스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었 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 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이든 이 대답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 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도 드립니다.”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유명한 [천 지창조]가 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이었다. 그때 하이든은 몸 이 몹시 아팠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는 환자로서 뒤에 앉아 있게 되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하 나님 앞에서 지휘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휘자 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자 석 발코니에 앉아 있는 하이든을 가 리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 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 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일제히 일어나 하이든 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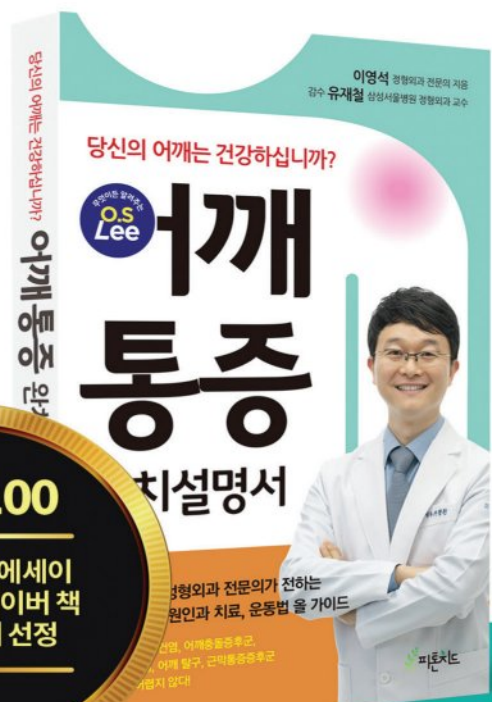


그러자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말했다. “아니 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 을 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 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 다. 그분께 이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다. 그는 평범한 음악가였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자기를 찾아 주시고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써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 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

2026년 9월 3일(목) 교계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제4차 비전 100 교회 성장 세미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하성)	10:00 ~ 17: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물맷돌중앙교회
2026 가을학기 실천목회 연구원 및 사모대학 개강	연세중앙교회 / 기독교한국침례회	13: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원들산수양관
제22기 영성학 수사과정 가을학기 개강	기독교학술원	13:30	서울 종로구 기독교학술원 세미나실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제2차 정책발표회	기독교대한감리회(KMC)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14:00 (동시진행)	- 경기도 이천시 이천중앙교회 - 충남 부여군 부여제일교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중앙교회 - 전북 김제시 김제갈릴리교회
- 중앙연회 - 남부연회 - 삼남연회 - 호남연회			

2026년 9월 3일(목) 한국 교계 주요 교단과 학술 기관을 중심으로 목회자 세미나, 교단 선거 정책발표회, 가을학기 학술 강좌 등이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는 9월 3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물맷돌중앙교회에서 '제4차 비전 100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하성 총회장 이기봉 목사가 개회 예배 설교를 맡으며, 물맷돌중앙교회 안호성 목사와 CPS 관점설교학교장 최식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회 성장과 설교 전략을 강의할 계획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7회 총회 감독선거에 출마한 각 연회별 후보자들의 제2차 합동 정책발표회를 9월 3일 오후

2시 전국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연다. 중앙연회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이천중앙교회에서, 남부연회는 충남 부여군 소재 부여제일교회에서 각각 정책발표회를 갖는다. 삼남연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중앙교회에서, 호남연회는 전북 김제시 김제갈릴리교회에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회자 연수 및 전문 학술 과정도 개강에 들어간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연세중앙교회는 9월 3일 오후 1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원들산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2026 가을학기 실천목회연구원 및 사모대학'을 개강하며, 해당 과정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될 예정이다.

다. 기독교학술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기독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제22기 영성학 수사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가을학기 수사과정은 격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며,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련 학술 및 영성 훈련 과정을 이행하게 된다.

선교

2026년 9월 3일(목) 교계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2026년 가을학기 선교 수강 과정 온라인 개강	EJMA 선교교육원 (예수선교사관학교)	10:00	온라인 (EJMA 공식 강의시스템)
한인 교역자·선교 사역자 경계 훈련 (Boundary Training)	미국장로교 (PCUSA) 한인선교부	13:00 (EST)	온라인 화상회의 (ZOOM)
2026학년도 가을학기 선교 훈련 과정 면접 전형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	14:00	목원대학교 신학관(A관) 312호 및 선교훈련원장실
파노라마 성경 개관 무료공개 특강 (1차시)	예즈뎃성경교육연구소	14:00 ~ 16:00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이주민선교를 위한 한국어교육 초급과정 3기 개강	만나교회 이주민선교회	19:30 ~ 21:00	만나교회 (대면 강의)
예수동행 목욕집회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WJMJ)	20:00	비홀드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인근)

2026년 9월 3일 국내외 주요 선교단체와 교회 선교부, 전문 훈련기관들이 선교사 양성 교육 개강, 선발 면접 전형, 연합 집회 및 후일 미사 등 공식 사역 일정을 일제히 진행할 예정이다.

선교 인력 양성과 사역자 재교육을 위한 학사 일정이 9월 3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훈련원은 9월 3일 오후 2시 대전 목원대 신학관(A관) 312호와 선교훈련원장실에서 2026학년도 가을학기 선교 훈련 과정 지원

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시행한다. 본 과정은 매주 월요일 운영되는 2학기 과정으로 선발자에게는 정규 선교사 양성 훈련이 제공된다. 합격자는 익일인 9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만나교회 이주민선교회는 국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한국어교육 초급과정 3기'를 9월 3일 저녁 7시 30분 만나교회에서 개강한다. 본 과정은 10월 29일까지 총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대면 강의 8회와 동영상 강의 6회로 병행 운영될 계획이다.

EJMA 선교교육원(예수선교사관학교)은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2학기 선교 교육과정을 개시하며, 미국장로교(PCUSA) 한인선교부는 미 동부표준시(EST) 기준 9월 3일 오후 1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한인 교역자와 선교 사역자를 위한 '한국어 경계 훈련(Boundary Training)'을 주관한다. 선교 현장 지원 및 말씀 교육을 위한 공개 집회도 9월 3일 편성되어 있다.

NGO

2026년 9월 3일 주요 기독교 NGO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롯데 벨유 for ESG 5기 대학생봉사단 모집 접수	주최: 롯데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3일(상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서류 접수 페이지(구글 폼)
취약계층 청년 자원사업 물품구매 및 증빙 접수	주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3일(상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서류 제출처

국내 대표 기독교 국제구호개발 NGO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희망친구 기아대책)가 2026년 9월 3일 대학생 ESG 봉사단 모집 접수와 취약계층 청년 자립 지원 물품 증빙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3일 기아대책에 따르면, 롯데지주 및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롯데 벨유 for ESG' 5기 대학생 봉사단 모집 접수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대학생 단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

예즈뎃성경교육연구소(소장 이대희 목사)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라이브(ZOOM)로 성경 66권을 다루는 '파노라마 성경 개관 무료 공개 특강' 1차시 강좌를 진행한다.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WJMJ, 대표 김승희 목사)가 주관하는 정기 '예수동행 목욕집회'는 9월 3일 저녁 8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비홀드교회에서 열려 선교적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한다.

노형구 기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웰다잉 심화 프로그램 ‘2026 re:리본클래스’ 성료

유언장 작성·모의 추모식 등 6단계 체험…

참가비 전액 저소득 장기부전 환자 수술비로 지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삶의 마지막 막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웰다잉 심화 프로그램 ‘2026 re:리본클래스’를 진행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 ‘공간채비’ 메인홀에서 실전형 원데이 클래스 ‘2026 re:리본클래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성숙한 웰다잉 문화와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30명이 참여했다.

‘2026 re:리본클래스’는 본부가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죽음준비교육을 토대로 마련한 체험형 심화 과정이다. 장기기증

을 통해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와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리본’의 정신을 담은 웰다잉 프로그램 ‘리본(Re-born)클래스’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과 임종 과정을 직접 돌아볼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 촬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유언·상속 교육, 장기기증, 자필 유언장 작성, 작은 장례와 모의 추모식, 소감 나눔 등 6단계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촬영부터 유언장·모의 추모식까지 첫 번째 프로그램 ‘가장 나다운 안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공간채비’ 메인홀에서 실전형 원데이 클래스 ‘2026 re:리본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에서는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유언과 상속’에서는 평화로운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의 강연

이 마련됐으며,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에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장기기증의 의미를 살펴봤다.

네 번째 순서인 ‘마지막 인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법적 효력을 갖는 자필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내용을 나누며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돌아봤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작은 장례와 추모식’에서는 작은 장례 절차를 체험하고 실제 장례식을 가정한 모의 추모식을 진행했다.

◆생존 장기기증인 이태조 목사 모의 추모식 진행

모의 추모식의 주인공으로는 신장과 간을 기증한 이태조 목사가 참여했다. 이목사는 경북 상주 예일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목사의 삶을 돌아보는

모의 추모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 남겨질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조 목사는 “오늘의 기억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나누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프로그램 ‘마침표를 넘어 울림’으로에서는 참가자들이 웰다잉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했다.

◆참가비 전액 장기부전 환자 수술비 지원

이날 행사에는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유경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새울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김승현 변호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체비전 승욱 이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 등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웰다잉과 유언·상속, 장례, 장기기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re:리본클래스의 참가비 전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부전 환자들의 장기기식 수술비로 사용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장기기식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차분히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라며 “이번 클래스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생명나눔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JDM, 9월에도 캠퍼스 선교 계속… 제자훈련·사경회 진행

KDTI 36기, 인도네시아·베트남서 해외 선교훈련
대표간사 리트릿 통해 향후 5~10년 사역 방향 모색



예수제자운동(JDM·한국대표 임상섭 목사 사진)이 가을 학기를 맞아 캠퍼스 선교와 제자훈련, 해외 선교훈련을 이어간다.

임상섭 목사는 2026년 8월 사역편지를 통해 “9월에도 제자를 세우는 캠퍼스 선교는 계속된다”며 한국제자훈련원(KDTI) 훈련과 지구별 사경회, 대표간사 리트릿 등 하반기 주요 사역 계획을 전했다.

KDTI 36기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편 23편 말씀을 주제로 7123 수

양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양회는 전반기 훈련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과 개인 정비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주님과과의 관계와 친밀감을 다지고, 독서훈련과 토론을 통해 지성적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넘어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모색하고, 시편 23편에 나타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되새겼다.

KDTI 36기 해외 선교훈련은 지난달 31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된다. 문윤환 간사와 훈

련생 10명이 참여해 현지 사역을 지원하고 선교 현장을 경험한다.

엄 목사는 “무엇보다 현지 사역을 지원하고 한 팀을 이루어 선교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JDM은 9월 한 달 동안 경남과 대구, 인천, 천안 등 4개 지구에서 ‘성경적 삶을 위한 말씀운동’을 취지로 사경회를 개최한다.

경남지구는 1일부터 4일까지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Holy Alternative: 돈과 성공의 시대, 유일한 소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한다.

대구지구는 14일부터 17일까지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을 살펴본다.

인천지구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다니엘

서를 본문으로 ‘제속사회를 살아가는 예수 제자의 신앙 분투기를 다룬다.

천안지구도 같은 기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

JDM 대표간사들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2026년 대표간사 리트릿’을 갖는다.

이번 리트릿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JDM의 중장기 사역 방향과 전략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진행한다.

엄 목사는 대표간사 리트릿에 대해 “모임 공동체의 다음 5년, 10년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며 설계하는 미래를 위한 R&D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트릿에서는 제10차 JDM 세계선교대회 평가를 비롯해 해외 선교 개척과 확장

을 위한 한국 JDM의 역할, 대표간사 역량 강화 방안, 제자도와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JDM 개척 50주년을 앞두고 향후 사역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을 계획이다.

JDM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춘천 온누리교회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개척 49주년 감사축전을 개최한다.

감사축전에서는 지난 49년 동안 JDM을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새롭게 다짐 예정이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점도 확인한다.

엄 목사는 “49년간 교회의 동역이 있

었기에 ‘주님과 작은 무리의 모임’이었던 JDM이 캠퍼스와 선교지를 섬기는 중견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JDM은 그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한다는 취지로 신학생 1명과 국내 지역교회 1곳, 해외 지역교회 1곳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대 학사회가 방학 사역을 위해 100만원을 후원한 소식도 전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혼과 출산, 치료와 회복을 비롯한 여러 소식을 나누며 이들의 가정과 삶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엄 목사는 하반기 캠퍼스 선교와 사경회, 간사 세미나, 성경 강해 등의 일정을 전하며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장요한 기자

용산구,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에 국공립 꿈누리어린이집 개원

서빙고·이촌동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0~2세 영아 중심 6개 반·정원 30명 규모

서울 용산구가 동빙고근린공원 내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열었다.

용산구는 1일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꿈누리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37곳으로 늘어났다.

구에 따르면 서빙고동과 이촌1동 일대에는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이 3곳에 불과해 보육 수요에 비해 공공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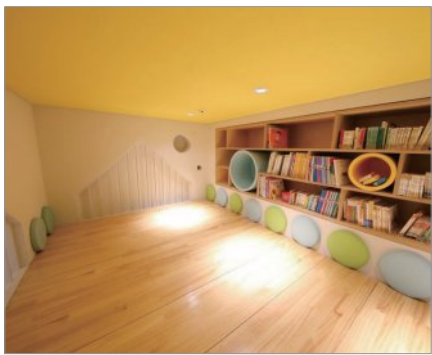
이에 용산구는 온누리선교재단과 협력해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1층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했다.

꿈누리어린이집은 연면적 347.38㎡ 규모로 조성됐으며 보육 정원은 30명이다.

영아 보육 수요를 반영해 0세반 2개, 1세반 3개, 2세반 1개 등 모두 6개 반으로 구성됐다.

실내에는 영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한 유희실도 마련됐다. 구는 유희실을 활용해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지난 5월 말 시설 공사를 마친 뒤 7월과 8월 신규 원아와 교직원 모



꿈누리어린이집. ©뉴시스

집 등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 27명의 원아가 입소를 확정했다.

용산구는 이번 꿈누리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서빙고동과 이촌1동 일대의 공공보육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보육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UBF 안암1부, 졸업생 9명의 새 출발 축복

학업·신앙 여정 돌아보며 졸업 소감과 송사 나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안암1부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크홀에서 ‘2026년 졸업 소감 발표모임’을 열고 졸업생 9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2월과 8월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학업과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감사와 격려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졸업을 한 과정의 마침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며 졸업생들의 소감을 들었다.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한 동역자들은 졸업을 축하하는 송사(送辭)를 전하고 이들의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모임은 참석자들이 찬송가 ‘나의 길’ 다 가도록을 부른 뒤 문수정 목자의 대표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신준성, 이예림, 김진석, 이재현, 이유경, 이예진, 류진규, 이성산, 박조수 아 목자가 차례로 졸업 소감을 발표했다. 이유경 목자와 박조수 아 목자는 근무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졸업생들은 학업과 신앙생활 가운데

배울어진 은혜를 돌아보고, 졸업 이후 맞이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소감 발표에 이어 김세환, 김수미, 김하용, 이예찬, 임하림, 박지현, 김권서, 황주혁, 김다니엘 목자와 형제들이 졸업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송사를 전했다. 임하림 목자의 송사는 류진아 목자가 김하용 형제의 송사는 양세환 목자가 대신 낭독했다.

아홉 편의 졸업 소감과 아홉 편의 송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졸업생들과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창무 목자는 발립보서 1장 6절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으로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졸업은 그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로와 삶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조급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

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했다.

안암1부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은 메달 각인 볼펜을 선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찬양 ‘아름의 축복’을 함께 부르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하했다. 모든 순서를 마친 뒤에는 졸업생들과 악수례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석자들은 졸업생들의 직장과 학업, 가정과 선교의 여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했다.

장요한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2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2

음악의 효과적인 사역 (MUSIC'S EFFECTIVE MINISTRY)

다윗의 음악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삼상 16:23). 버클리 개정판은 “그것은 사울을 편하게 해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쾌한” 그리고 “편안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라박(ravach)인데, “넓어지는, 공간이 커지는, 안도감을 가져다주도록 여유 공간을 부여하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파트(Moffatt)는 “그는 사울이 자유롭게 숨을 쉴 때가 되 연주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젊은 청년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 젊은이의 음악은 캄캄함에 휩싸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왕의 가슴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만든 원시적인 현악기를 어깨에 메고 사울이 살고 있던 그 어두운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사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라. 누구든 상관 없다. 그를 데려오라”

다윗의 음악은 이 고뇌의 사람에게 우리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을 풀어 주어 그 안에 있는 사나운 짐승의 마음을 달래어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날 즈음에는 그는 안정이 되었고 사악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왕의 침실로 들어가게 하려고 음악이라는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이 자신의 혼을 어루만져 준 젊은 목동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소유하기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시편가(a Psalter)라고 불렀던 찬송가(a hymnal)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경책과 그 믿음의 깊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줄 시편가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조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는 교리의 선포와 그것이 노래에 담은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거나 인간의 소리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음악이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벽 별이 함께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때 별들이 목소리를 내었든지 아니면 천군천사들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후자의 뜻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서서 창조주께 찬양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화음이 있는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계시록의 장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 우리의 최고의 표현은 노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세상이 생기기 전에 노래가 있었고 세상이 지난 후에도 노래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그분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



신은 지난 한 달 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자주 노래를 불렀나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찬송을 얼마나 불렀나요? 우리의 목소리는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 성경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일에는 좀처럼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나는 음악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마틴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최상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나님께서도 음악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성경책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이 히브리인의 찬송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찰스 해돈 스피켄전은 그의 시편 주석인 『다윗의 보물』(The Treasury of David)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에 대한 즐거운 연구는 나에게 한이 없는 유익과 계속 늘어나는 기쁨을 내어주었다.” 그는 후에 시편을 “비할 데 없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벼운 가사와 쉽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노래들만을 좋아한다면 시편을 진정으로 즐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편은 음악의 정의를 ‘예리한 사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악입니다. 시편은 피상적이거나 알팍한 예술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3편, 91편, 시 100편, 그리고 시 119편의 일부분... 그러나 대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시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실, 나는 영적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생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감정이 힘들 때마다 시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G. Campbell Morgan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인간 혼의 감정이 그 안에서 표현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떨든지, 당신도 나처럼 변화하는 기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기분을 표현하도록 당신을 도와줄 시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쁘세요? 난 당신이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프세요? 나는 거기에 알맞은 시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과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이 시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한 여자가 무엇이든, 장조이든 혹은 단조이든 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라는 책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은 내가 그분에게 나의 찬송을 노래하는 그때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찬송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멜로디는 하늘

로 곧바로 올려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테나가 항상 수신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당신의 노래의 수고가 항상 고맙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소리로 사람들의 패배의 식을 때내려 보내기에 충분한 소리로 크게 노래하세요. 내성적인 거리낌과 주저함의 우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크게 노래하세요! 힘차게 노래하세요! 당신은 성가대원이 되려고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담아 멜로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친 후에 자세히 들어보면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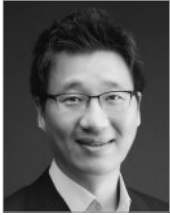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절망과 우울의 철장으로부터 해방된, 긍정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갈망과 능력을 주시고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Soft Music for a Hard Heart』 by Charles R. Swindoll / 번역 김영국 목사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합창에 있어 다이내믹의 표현



다이내믹의 역할

합창 연주에 있어 다이내믹의 표현은 여러 음악적 결과를 낳는다. 쉼여림을 통해 음악적 라인의 형태와 구조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곡의 긴장과 이완, 그리고 가사 전달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합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블렌딩(Blending), 밸런스(Balance)와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부 간 다이내믹 레벨의 표현에 따라 합창의 밸런스를 꺾 수도 있고 블렌딩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파트의 구조적인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쉼여림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이내믹과 텍스처의 연관성

곡의 텍스처(texture)와 다이내믹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모포닉(Homophonic)한 짜임새로 이뤄진 음악의 경우 모든 파트가 동일한 쉼여림으로 노래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다이내믹의 레벨에 있어 멜로디를 노래하는 파트, 화성적 중요도(전조를 비롯한 비화성의 해결)를 가진 성부, 그리고 중요한 가사를 표현하는 파트 등이 있기에 호모포닉한 텍스처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다이내믹이 적용되어야 한다. 폴리포닉(Polyphonic)

한 음악의 경우 좀 더 섬세한 다이내믹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러 성부가 시차를 달리하여 노래하는 경우 구체적 다이내믹 표현의 부재는 주제 선율이 묻히고 각 성부가 각기 큰 소리로 노래하여 각 선율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주제선율 혹은 모티브를 포함한 성부와 대선율 파트, 긴장을 고조시키는 스트레토(stretto) 성부들, 그리고 지속음을 담당하는 성부 등을 지휘자는 각기 음악적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다이내믹을 부여해야 한다.

다이내믹 표현에 있어 유의할 점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다이내믹 가운

데 기본적인 어휘라 할 수 있는 것은 crescendo와 decrescendo이다. 나아가 messa di voce(지속되는 일정한 음을 크레센도에 이어 서서히 줄이는 연주 기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사운드를 풍성하게 만들며 음악의 선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하지만 이 표현들이 잘못 사용되면 거친 소리, 급격한 표현, 그리고 자칫 음정의 불안정함 등을 만들 수 있다. 마치 과도한 f는 샤프(#)를, p는 플랫(b)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은 안정된 호흡에너지와 순차적인 표현의 부재로 야기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cresc.와 decresc.의 표현에서 통상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행하는 패시지에서 자연

스레 크레센도가 되기 때문에 과하게 표현된 인위적 cresc.가 미적 선율을 오히려 망쳐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낮은음에서 높은음으로의 도약에서 높은음이 지나치게 악센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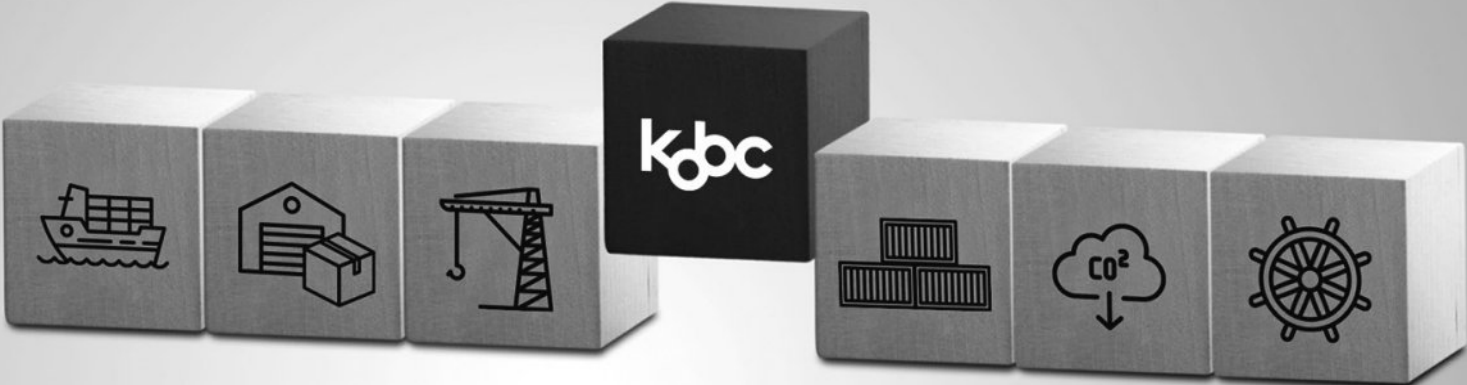
◆ 최상윤 교수

경희대학교 작곡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SU)합창지휘 석사
노스텍사스 대학교 (UNT) 합창지휘 박사
현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4개 교회 청년부, 연합 연애세미나 ‘우다연’ 개최

9월 5일 무학교회서 청년 120명 참여
배다해 토크콘서트·크리스천 연애관 워크숍 진행



무학교회와 새문안교회, 창동염광교회, 충신교회 청년부가 오는 5일 서울 무학교회 1층 비전홀에서 연합 연애세미나 ‘우다연’을 공동 개최한다.

‘우다연’은 ‘우리, 조금 다르게 연애해 볼까?’의 줄임말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배우며 건강한 사랑의 기준을 함께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진행된다. 1998년생 이상으로 연애를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교제 중인 4개 교회 청년 약 120명이 참여하며, 크리스천 만남 플랫폼 ‘위러브’(WELOVE)가 후원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세상의 연애 문화와 구별되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크리스천 연애관을 함께 세워가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별 교회 단위로 진행해 온 청년부 연애교제 프로그램을 4개 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

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남녀 비율과 교회별 인원을 고려해 12개 테이블에 고르게 배정된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테이블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리더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모든 청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전에는 아이스브레이킹에 이어 가수 이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가 ‘믿음 안에서 이뤄지는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배다해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연애에 관한 간증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질의응답에도 참여한다.

오후에는 두 차례의 90분 소그룹 워크숍이 이어진다. 박준하 목사가 진행하는 ‘나와 너의 연애관 탐색’에서는 연애 가치관 밸런스 게임과 ‘5가지 사랑의 언어’ 진단을 통해 각자의 연애 성향을 돌아본다.

참가자들은 주일 봉사와 데이트, 연락 빈도, 갈등 해결 방식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살펴본다. 자신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과 상처받기 쉬운 행동도 나누며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최현일 목사가 진행하는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신앙과 호감, 스킨십의 경계, 교회 봉사와 연애의 우선순위,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화 등 크리스천 청

년들이 실제 교제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다룬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거쳐 자신이 지키고 싶은 세 가지 연애 원칙을 정리한 ‘우다연 헌장’을 작성한다. 이를 테이블 구성원 앞에서 나누고 서로의 건강한 만남과 앞날을 축복하는 글을 적은 뒤 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백석준 새문안교회 청년부 목사는 “연애와 결혼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중요한 고민이지만, 한 교회가 충분한 만남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며 “이에 4개 교회 청년부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연애와 결혼을 이야기하고 실재적인 기준을 함께 세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는 데 그

치지 않고 서로 다른 교회의 청년들과 만나 생각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라며 “교회들이 연합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백 목사는 또 “크리스천 청년들도 사랑과 결혼을 꿈꾸지만 실제 연애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되는지, 스킨십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갈등을 어떻게 풀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부딪힌다”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교회를 넘어서는 청년 교제와 연합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요한 기자

지예은·바타, 12월 결혼…교제 1년 만에 부부로

교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연인으로 발전

배우 지예은(32)과 댄스 크루 ‘위랩보이즈’의 리더 바타(32)가 교제 약 1년 만에

결혼한다.

양측은 2일 “두 사람이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오는 12월 1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1994년생 동갑내기인 지예은과 바타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가까워진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지예은은 2017년 웹드라마 ‘하우투’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리즈에서 개성 있는 연기 와 예능감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SBS 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바타는 댄스 크루 ‘위랩보이즈’를 이끄는 댄서이자 안무가다. 2022년 엠넷(Mnet)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댄 파이터’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

렸다. 당시 지코의 곡 ‘새빨’ 안무를 제작해 챗린지 열풍을 이끌었다.

바타는 지예은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충주지씨’의 곡 ‘밀크셰이크’ 안무를 맡기도 했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해 온 두 사람은 신앙 안에서 쌓아온 믿음과 연인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부부의 연을 맺는다.

다니엘 최 기자



바타, 지예은. ©인스타그램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40일차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3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3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산정현강단(장재우)(1023회) 30 TV강단 감사대림(차영아)	1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아사 3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대구범어-정영일/이지훈 30 생명의 말씀 동안-김형준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행복한 쉼터 여의도순복음은혜 (이태근) 50 GOODTV NEWS	10 [말씀] 김주환 목사(허브교회)(11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88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강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78회)	40 성경 속 인물사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계산제일-권오규 50 생명의 말씀 수지 기쁨의-김원태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이요한) 50 비전설교 대한 (윤영민)	30 휴먼네컷(55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39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8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시황 황덕영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9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르윈다 편(목양감리교회-김완중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3일 20 [말씀] 김형석 목사(자구촌교회)(235회)	00 하나님의 음성(21회) 20 CBS 성서학당 (아사)(4552회) 성서 속으로 Go Go! 17강	00 복음강단 에베그리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09:00	00 원더풀우먼(44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6장 전원 회 목사	30 행복한 쉼터 아델포이 (임동현)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65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3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삼소)2(30회)	10 새롭게하소서(11115회) 정유나 수행비서 3부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62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40 믿음의 리액션(26회) 제주도 2
10:00	40 마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RE바이블(44회)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52회) 40 목사님 궁금해요(172회)	20 성지가 좋다(545회) 요르단, 마케루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신약
11:00	00 7000마라클-예수사랑여기에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50 신앙에세이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 (유병근) 30 사랑의 메시지 남서울중앙(피종진)	10 [말씀] 윤관선 목사(은혜샘물교회)(283회) 50 Q&A 107 소요리문답(19회)	00 올포럼(76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49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5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요셉의 통곡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200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경산중앙-김종원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행복한 쉼터 온유한 (박경숙)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3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545회)	00 TV강단 오병아(권영규) 30 오직예수 (이영훈)(966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곤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9회)	00 사랑의 메시지 안영생명나무 (손영숙) 30 사랑의 메시지 창산성결 (석진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08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5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0회)	30 김재원의 광야예찬(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2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66회) 진산규, 박보경 부부 2부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3일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357회)	00 말씀의 힘 우면동(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487회) 제때미 윤 목사	20 풀다보면(34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대살로니가에서
15:00	40 7000마라클-예수사랑여기에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우준 목사(자구촌교회)(28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3일	20 CBS 성서학당 (김기삼)(4550회) 마태복음 46강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신촌성결-이정익/박노훈	00 행복한 쉼터 소생 (강복렬)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 (문대현)	00 하종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58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3회) 50 [말씀] 김형익 목사(뽕살롱교회)(439회)	10 맨투맨 처치(21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32회) 50 하나님의 음성(21회)	00 아사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신약
17:00	00 생명의 말씀 새매덴-소강석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강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29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7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40회) 50 영혼의 양식 성경통해(김주철)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10 비전설교 대전태평 (한상현)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THE NEW 하늘빛향기(25회) 50 714 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5회)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인마를 예배 (김영준)(298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30 말씀의 창 엘드림교회 안병재 목사
19:00	20 마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70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경님과 함께	00 714 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5회)	20 CBS 교회소식(1066회) 30 TV강단 예배(정은주)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성안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442회) 김하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강남중앙-정찬영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예선스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노크토크	20 레디몬(200회)	00 성령의 시대(57회) 50 말씀의 샘 대한성공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재 목사
21:00	00 메신저스 남빈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29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2026년 08월 29일	00 CBS 성서학당 (아사)(4552회) 성서 속으로 Go Go! 17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4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212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6장 전원 회 목사	00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3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45회)	00 CBS NEWS 10 20 CBS 스페셜 제14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72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201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46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2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기도로 바꾼 예사의 얼굴 50 리바이츠 워십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김두식 목사 25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263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3일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3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님의 증인들(31회) 30 잘 믿고 잘 사는 법(352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8회)	00 풀다보면(34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대살로니가에서 4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아사
00:00	00 Calling GOD(2562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명사들의 명강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3일 20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6회)	10 새롭게하소서(11115회) 정유나 수행비서 3부	00 강연소 통(77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오라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구약
01:00	00 더 초존 시즌1(더빙)(2회) 15세 50 위대한 발걸음	10 조용기 목사, 명성교	00 [말씀] 김문성 목사(영락교회)(261회) 40 [말씀] 안광복 목사(성당교회)(326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1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98회)	00 고품격 크리스천 토크 토크쇼 : 차복(33회)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30 성지가 좋다(545회) 요르단, 마케루스
02:00	10 7000마라클-예수사랑여기에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27회)	30 TV강단 강남중앙찬례(최병락)	00 우리 함께 찬양해(26회) 양무리교회 2부 40 김병성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43회)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열왕기 6장 전원 회 목사 50 마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237회) 30 [말씀] 이동원 목사(자구촌교회)(876회)	00 올포럼(76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4:00	0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한국중앙 (임석순)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254회)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1회)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8강 50 CBS 교회소식(1066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7회) 김선도 목사 30 김재원의 광야예찬(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